

목 / 차

2020 무지개다리 사업 소개	3
전국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화다양성 사업과 정책의 발자취 - 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기반연구실장 • 대중문화에 더 많은 목소리를 허하라 -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 문화다양성으로 본 장애인예술 - 방귀희 사/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대표 •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문화다양성 - 장현선 (주)장애파트너스그룹 대표 	
충남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만의 삶, 그 무엇 - 제 삶 시대, 대안적 삶을 찾아서 - 김정혁 現 (주)자이엔트 대표, (재)충남문화재단 비상임이사, 삶기술학교 설립자 • 지역문화기획 - 〈사람책 도서관〉, 지나온 이야기 - 이재남 동네형아 대표 	
대전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생명은 다양성에서 출발한다 - 조성칠 대전광역시의원 • 우리多문화人 알리미 프로젝트 속에서 바라본 문화다양성 - 김에가테리나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 러시아 	
세종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도시, 세종시를 꿈꾸며 - 노종용 세종특별자치시의원 • 세종시민이 만드는 문화다양성 조례 - 유정규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 안녕하세요? 내 안의 문화다양성 - 김도영 예술인, 한국화가 	
충북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이주민의 인권 - 안건수 청주 이주민노동인권센터장 • 혐오의 시대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운영위원 	

2020
/
무지개다리 사업
소개

2020 충남문화재단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사업

〈서로, 소리〉

◎ 사업 목표

- 모두를 위한 문화 기회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 지역 내 외부, 소수 문화를 배척하는 배타주의 인식 개선 및 가치 확산 추진
 - 다수자 대상 소수 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문화다양성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생적 활동 환경 조성
 - 지역 내 문화다양성 관련 커뮤니티 조성 활성화
 - 충남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기반 지역 맞춤형 문화다양성 활동 가축화

◎ 기대 효과

- 지역 내 문화다양성 관련 주제 쟁점화 및 이를 통한 지역 문화 성숙 도모
 - 상호 문화주의에 입각한 문화다양성 관련 이슈화
 - 차별 없는 다양성 추구를 통한 지역 문화 향상
- 지역 특성 반영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 내 문화다양성 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
 - 지역 특성 반영한 명확한 프로그램 설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지역 내 문화 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 통한 활동 폭 증대

◎ 프로그램 소개

구분		사업명
무지개다리 사업 〈서로, 소리〉	문화다양성 기반 구축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정책 위원회 〈정책 데스크 ; 충남 문화다양성의 미래〉
		문화다양성 라운드테이블 〈화음 ; 하나의 충남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
		문화다양성 칼럼 〈Focus Story〉
	문화다양성 가치 발굴 및 확산 프로그램	정신 장애 편견 극복 캠페인 〈가능성의 예술, 아름다움을 채우다〉
		문화다양성 공공 영화 상영회 〈영화방 수다방〉
		문화다양성 도서 캠페인 〈사이 책방〉
		청양 문화 더하기 〈청년 기획단, 오픈 마이크〉
		우리 동네 별의별꼴 이야기 〈우리 동네 사람책 도서관〉
	지역 특화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 프로그램 〈바람, 바람(Wish, Wind)〉	문화다양성 렉처 콘서트 〈Life 溫 Music ; 상실의 시대〉
		문화다양성 홍보 캠페인 〈알리오 올리오〉

2020 대전문화재단 무지개다리사업

〈우리多함께〉

◎ 사업 목표

- 지역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및 가치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 지역 관계자 대상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을 통한 긍정적 문화다양성 인식 강화
 - 지역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한 무지개다리사업 실행 파트너십 구축
- 소수문화계층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교류 기회 제공
 - 소수문화계층의 문화다양성 기반 소통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표현 기회 확대

◎ 기대 효과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다양한 문화주체의 소통/교류 지원을 통한 긍정적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성 및 필요성 강조
 -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형성함으로써 차별 등 사회적 갈등 완화
- 지역 문화다양성 브랜드 확립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중장기적 무지개다리사업 파트너십 구축
 - 공공-민간-지역사회 간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 개발의 기반 마련
 - 지역적 특성 및 재단 사업과 연계 등을 통한 지역 특화 문화다양성 프로젝트 개발

◎ 프로그램 소개

구분		사업명
무지개다리 사업 〈우리多함께〉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대전문화재단 내부 직원 대상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교육
		지역 내 교육자 및 예술가 등 대상 문화다양성 정책 교육
	지역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지역 문화다양성 유관기관 및 프로젝트 참여자 대상 정기 네트워크 간담회 운영
		대전 문화다양성 공유채널 플랫폼(SNS) 개설 및 운영
	소수문화계층 문화예술활동 지원	소수문화계층 각 그룹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多함께 프로젝트〉 운영
		문화다양성 주제의 작사(작품) 공모를 통해 합창 공연을 개최하는 〈多함께 아에이오우〉 운영
문화다양성 주간 연계사업	충청권 문화다양성 리서치북 제작 및 발간	

2020 세종시문화재단 무지개다리사업 〈多화만사성 : ‘다름’이 ‘다음’을 만듭니다.〉

◎ 사업 목표

1. 지역주민 간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2. 지역 주체들과의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확대
3. 문화다양성 관심 증대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교육 확대

◎ 추진방향

1. '17~19년 프로그램의 연속성 유지 및 보완발전
 - 프로그램의 연차별 지속적 확대 및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세종시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 운영
2.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실천을 위한 문화다양성 거버넌스 구축
 - 매개·유관·연계 등 관계기관과 네트워크 확대 및 공동사업 추진
 - 재단 및 유관기관 사업에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시행
3. 문화다양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 프로그램 소개

추진과제	추진 프로그램
세종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발굴	多화만사성 BUS
	多화만사성 북 콘서트
	문화다양성 북살롱 多독
	多가치 사진공모전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문화다양성 라운드테이블
	시민 연구모임〈공감모임〉
	충청권 문화다양성 협력 사업
	매개기관 상호 연계 프로그램 교류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프로젝트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개발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多가치교육〉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프로그램〈예술 속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모임
	문화다양성 영상 제작·배포

2020 충북문화재단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오색빛깔 조약돌〉

◎ 사업 목표

1. 충청북도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립 기반 구축을 위한 ‘조약돌 네트워크 운영’
 - 문화다양성 실천적 논의구조로 다양한 분야 및 기관의 전문가 협의체 구성
 - 충청권 지자체, 시민사회·문화예술단체 등 관계자 및 활동가 정책 네트워크
 - 〈다.모.아〉 3개 운영단체 관계자 네트워크, 조약돌 참여자 네트워크 구축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 연계
2. 충청권 문화다양성 가치 실현을 위한 관련기관 연계
 - 충청권 문화다양성 리서치북 공동 개발·제작
 - 문화다양성 가치실현을 위한 충청권 공동사업 지속 추진 및 교류 체계 강화
 - 광고, 영상 배포를 통한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 충북 도민 대상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진행으로 문화다양성 메시지 전달

◎ 기대 효과

1.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 권장 보호
 -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다양성 문화예술활동 권장 및 동기부여 마련
2. 충청북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 사업추진과 성과를 바탕으로 충북의 문화다양성 실행계획 및 정책 수립, 연구조사 시행
3. 충청북도 문화다양성 기구 운영
 -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충북 문화다양성 위원회 구성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도내 협력기구 운영과 지원

◎ 프로그램 소개

구분		사업명
무지개다리 사업 〈오색빛깔 조약돌〉	조약돌 네트워크	정책자문 네트워크
		사업기반 네트워크
	관계 기관 연계 사업	충청권 문화다양성 리서치북 제작
		문화다양성 캠페인〈아직도?〉, 〈오색빛깔 비행기〉
	가치 확산 프로그램	다.모.아. 프로그램(네트워크 협력사업)
		생애주기별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지역 연계사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조사
		문화다양성 페스타 차차차 시즌2

전국 /

- 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기반연구실장)
-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 장현선 (주)장애파트너스그룹 대표

한국 문화다양성 사업과 정책의 발자취

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기반연구실장)

1. 서론

한국은 2010년 4월 1일 주 유네스코 한국대표부를 통해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서를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하여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이후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정책을 입안하고 협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왔다. 2014년 5월엔 국내에서 문화다양성법을 제정하고 4년 주기 국가보고서 제출(2015/2018)을 통해 중앙 및 지자체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유네스코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의 결실로 금년 2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본부에서 열린 제13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이로써 한국이 국제사회 내에서 핵심 구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본 글은 문화다양성 협약 이전 다문화 정책의 흐름을 정리하고, 2010년 유네스코 협약 가입 이후 현재까지 문화다양성 정책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한 후,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다문화사회로의 전개와 관련정책의 도입

1990년대 초 노동시장의 인력부족에 대응하여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0년대부터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터다. 유입된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가 불거지며 이주노동자 문제를 포괄하는 관련 정책이 입안되어,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4년 국적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사회는 점차 다문화주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용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2006년 이후 이주민 관련 국내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이 주요과제로 부상하며 다문화정책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다문화 관련정책이 국가정책의제로 채택되면서 2007년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2008년 보건복지부 '다문화 가족 지원법', 2009년 외국인주민지원조례 같은 관련법이 제정되어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당시 다문화정책은 자국민 중심의 동화정책을 지향하는 것이어서 국내 거주를 바라는 외국인이 빠른 시간 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로의 적응을 돕고 향후 파생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이들과의 공존을 위한 관점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 관점에서 이주민 정착 및 우리사회에 동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2007.5.17.)

제정 사유 :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고, 대한민국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정 2008.9.22.)

제정 사유 :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

법률은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내사회로의 통합에 편중됐고 복지 관점에서 이들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주민들을 지원과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볼 뿐 향후 한국사회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경향이 낮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며 인식을 전환시키는 정책을 강화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들을 일방적 지원의 수혜자로 보도록 편견을 부추길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여러 구성원들의 주체적 가치를 인정하고 포용하기보다는 피상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을 총괄하지 않고 여러 부처별로 개별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관련행사를 중복적으로 치르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업무중복은 예산의 낭비와 같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 간 조정과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관련 정책수립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다문화정책 접근

정부는 2010년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대두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준비하며 그동안 분산 추진되고 있던 여러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 연계 협력을 확립하고자 했다. 또한 일반국민의 다문화 이해제고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표방하면서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12)

- 비 전 :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 목 표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추진과제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2010년 한국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110번째로 비준하면서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다문화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발표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적응 중점지원 및 시혜적 지원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상대의 문화를 서로 동등하게 존중해주는 사회분위기를 강조한 사회통합적 관점을 재정립하였다. 특히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강조하며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의 목표 아래 86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동 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교과부 등 범부처가 합동 추진하였다.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17)

- 비 전 :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 목 표 :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 추진과제 :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추진체계 정비

2013년 정부는 문화융성 3대 전략 및 10대 과제 중 하나로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 협력 확대를 설정하였다. 다문화정책을 다루는 중앙부처는 다양하지만,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능력을 높여 이주민과 내국인 간 문화적 소통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2012년 문화부가 주관하고 6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무지개다리사업이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등과 지역민의 소통교류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기존 정책의 대상인 인종과 국적이 다른 이주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탈북자, 여성, 장애인 및 노인, 독립예술가의 문화권리 증진을 더한 정책의 초점을 확장하면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왔다. 여전히 외국인·이주민지원을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는 점과 소수자집단을 분리하여 지원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나, 사회전반에 점차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론화한 점에 의의가 있다.

4. 문화다양성 정책기반 마련과 사업 확장추진

2014년 11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문화다양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기반으로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정의, 문화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과 제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1조	이 법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기법에 상관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등의 양식에서의 다양성을 포함
제4조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자료 : 법제처(www.law.go.kr)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및 협약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류 문화로 획일화하거나 독점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치들이 차별되지 않고 존중되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정책은 문화 간 갈등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수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열린 환경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문화자산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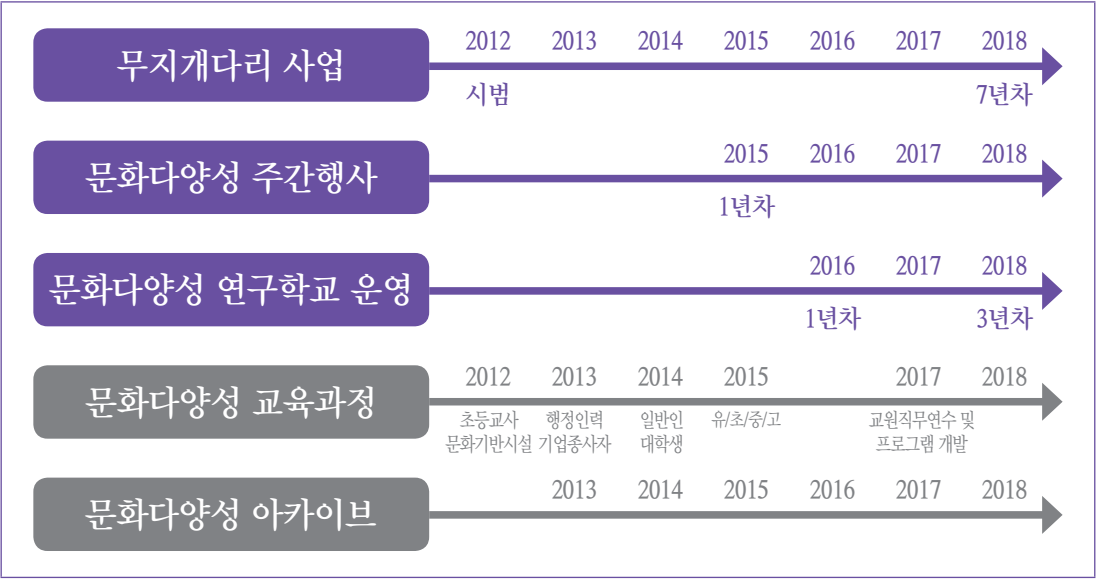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중앙부처는 2015년도 135개, 2016년도 188개, 2017년도 193개, 2018년도 250개의 정책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7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15년도 413개, 2016년도 1,617개, 2017년도 2,296개, 2018년도 2,812개가 추진되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수문화, 세대문화, 하위문화, 지역문화 등 다양한 문화 및 문화주체들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다양성을 확산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 제고로 정책을 전환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과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정책은 특히 무지개다리사업을 중심으로 가치 확산과 일정한 성과를 이루어왔다. 그 외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2015~),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운영(2016~)및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운영(2013~) 사업들을 통해 그동안 사회내부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소수문화가 점차 공론화 되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가시켰다.

무지개다리 사업 추진 내용 (2012~2018)

구분	2012년 (시범사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문화 예술 교육진흥원	한국문화 예술 위원회	한국문화 예술 위원회	한국문화 예술 위원회	한국문화 예술 위원회	한국문화 예술 위원회
예산	시범사업	22.7억 원	23.9억 원	24.3억 원	24.3억 원	19.9억 원	21.3억 원
참여기관	6개	12개 광역시도 문화재단 (4개), 광역시 문화재단 (5개), 기초문화 재단 (3개)	17개 광역시도 문화재단 (4개), 광역시 문화재단 (5개), 기초문화 재단 (8개)	2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 (6개), 광역시 문화재단 (3개), 기초문화 재단 (11개), 기타 (3개)	24개 광역시도 문화재단 (5개), 광역시 문화재단 (3개), 기초문화 재단 (11개), 기타 (5개)	25개 광역시도 문화재단 (6개), 광역시 문화재단 (4개), 기초문화 재단 (12개), 기타 (3개)	27개 광역시도 문화재단 (4개), 광역시 문화재단 (4개), 기초문화 재단 (16개), 기타(3개)
프로그램 수	-	138개	124개	183개	233개	242개	258개
참여자 수	-	124,812명	36,369명	108,830명	187,012명	226,321명	249,918명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2018년 무지개다리 사업 컨설팅 · 평가 연구」 . p. 27, 42 재정리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2018년 무지개다리 사업 컨설팅 · 평가 연구」 . p. 27, 42 재정리

국내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구성

5. 문화다양성의 장기적, 체계적 추진전략 모색 필요

다문화사회는 구성원들 간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며 서로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상호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문화다양성 정책은 이주민의 권리만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양식의 문화가치를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낯선 인종과 민족의 소수문화에 국한시켜 온 시혜적 다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사회 내부에서 젠더, 장애, 세대, 종교, 지역, 예술취향의 차이를 아우르는 문화정책으로 대상을 확장시켜 다양한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며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 위원회 의장국에 선출된 것을 계기로 초기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방향에서 향후 문화다양성의 장기정착화를 모색하는 체계적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축적된 사업 노하우로 뚜렷한 목표점을 지향하면서 중장기적 프로그램 기획과 효율적인 정책운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현장의 변화에 비해 중앙 및 지자체 정책지원 및 협력이 더딘 측면이 있어, 정책수립 단계에서 하향식 전달이 아닌 현장의 수요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상향식 정책개발을 지향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핵심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 이슈와 문제점을 담은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운영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토대로 다양한 소수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현실적인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일률적인 사업운영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평가지표의 적용보다는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의 성과과 규모를 반영하는 객관적 평가지표에 기반을 두고 수행과제 및 사업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의 문화다양성 관계자 및 핵심 매개인력들은

정형화된 정보제공을 통해 사업을 이끌기보다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문화다양성 가치를 가시화하고 역할을 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은 우리사회에 내재되어있는 이질적 문화의 권리증진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 간에 건강한 공존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닫힌 사고를 제거하고 관용과 다름을 용인하며 수용하는 개방적 환경은 한국문화를 보다 풍부하고 역동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미래성장 동력인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은 정책과 사업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별 사업 유형, 체계, 예산 등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층위를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지향성과 지자체의 광역도, 광역시 및 기초지자체 사업체계의 운영 및 전반적인 역할을 설계할 수 있는 체계별 발전 전략의 로드맵이 제시되는 다양한 측면의 정책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면 (2017),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효정 (2012),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실행계획연구
- 김지운 외 (2014), 닫힌 대한민국: 한국인의 다문화인식과 정책, 이슈브리프, 아산정책연구원
- 문화다양성아카이브 <http://www.cda.or.kr>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s://www.unesco.or.kr>

대중문화에 더 많은 목소리를 허하라

서정민갑(대중음악의전가)

대중문화가 넘치는 세상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만이 아니다. 게임, 대중음악, 스포츠, 영화, 웹툰/만화작품은 계속 늘어간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모바일 기기와 결합하면서 대중문화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분화하며 경계를 허문다. 팟캐스트와 유튜브, 넷플릭스 채널이 가세한 대중문화는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수 없을 지경이다. 관심과 취향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영역에 머무르는 게 당연해진 세상은 전혀 어색하거나 부족하지 않다. 수많은 대중문화 콘텐츠들이 경쟁하며 자신에게 시간을 쓰라고 유혹하는 오늘은 이용자에게 홍수 같고, 아티스트와 제작자에게 전쟁 같다.

그런데 수많은 대중문화 콘텐츠는 사람 이야기이거나 세상 이야기이다. 그리고 대중문화는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사람은 남성이나 여성, 혹은 다른 성이고 지구에 산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떤 국가와 민족 소속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연령대와 성적 지향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계급이고, 무슨 종교/가치/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지 등에 따라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 대중문화는 정체성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던지는 대화이고, 작품이며, 상품이다.

실제로 대중문화를 고르고 체험할 때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더 주목한다.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배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정체성과 닮은 사람들의 익숙한 이야기에 더 빨리 반응한다. 사람들은 충격보다 공감을 더 좋아한다. 한국의 경우 자신이 남성이고, 이성애자이며, 성인인데 서울에 산다면 대부분의 대중문화를 접할 때 어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의 대중문화는 남성/이성애자/성인/수도권 거주자의 삶과 지향,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많이 대변하기 때문이다. 여성/성소수자/청소년/수도권 이외 거주자의 삶과 지향,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는 대중문화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다.

그래서 정체성이 조금만 달라도 기존 대중문화가 자신 같은 사람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아니 모를 수 없다. 가령 자신이 수도권 밖에 산다거나 장애가 있다면 그 사람의 눈에 비친 세상은 대중문화 속 세상과 거리가 있다. 대중문화 속 세상은 대체로 수도권 사람들 이야기이고,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들만 등장하기 때문이다. 장애가 있는 이들은 대중문화에 접근하는 일부터 쉽지 않다. 수화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콘텐츠들이 허다한 탓이고, 휠체어를 타고 볼 수 있는 공연도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편하고 편파적이라는 이들의 목소리조차 쉽게 들을 수 없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다르다고 했던가. 대중문화를 접하면서 자신 같은 사람을 쉽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면, 자의건 타의건 자신이 우리 사회의 보편이라는 권력을 획득한 기득권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대중문화는 모든 정체성을 고르게 배려해 평등을 실현하는데 큰 관심이 없다. 오히려 존재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왜곡해 감춰 버린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한동안 대중문화 작품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인물은 불량하거나 가난한 인물로 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외국인이 많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젊은 백인 남성의 비중이 가장 높다. 아시아인, 흑인, 히스패닉, 여성 등의 정체성에서 보면 TV는 전혀 평등하지 않다. TV 뉴스 여성 아나운서가 최근에서야 안경을 쓸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으로 굴러왔고,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대중문화가 누구의 정체성을 대변하는지 살펴보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 우리가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누구의 입장과 정체성에서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지 반드시 따져 봐야 한다. 의도적으로 소외시키거나 누락시키고 왜곡하는 이들이 없는지 살펴보는 일은 아무리 과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대중문화는 달라지고 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여성들의 목소리 때문이다. 여성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서 대중문화도 함께 변했다. 사실 40대 대졸 이성애자 한국 남성으로 살아가면서 접하는 대중문화가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외모를 폄평하고, 비만을 놀리고, 애인 없는 이들을 희화화하는 유머 코드는 언젠가부터 불편해졌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에 죽자고 달려든 이들 덕분이다. 분명 누군가는 그 이야기에 맞장구 치며 웃을 수 없다. 그러니 누군가의 존재를 웃음거리로 삼으면 안 된다. 외모와 체중과 결혼은 선택일 뿐,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더 눈에 들어온 것은 웃기는 방식만이 아니었다. 대중문화의 마이크를 누가 쥐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여성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기 시작했고, 귀를 막아도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오래도록 재미있게 보았던 <1박 2일>의 출연진은 왜 항상 김종민, 고 김주혁, 김준호, 데프콘, 차태현 같은 남자들 뿐인지 궁금해졌다. 이서진과 옥택연을 내세운 <삼시세끼>가 유해진과 차승원 등의 찰떡 같은 케미를 보여주며 대박을 칠 때도, 왜 여성 출연진은 남성 출연자들을 설레게 하는 대상으로만 출연할 뿐 프로그램의 간판이 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왔다. <꽃보다 할배> 시리즈나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꽃보다 누나>편도 있었다. 하지만 주도권을 쥔 사람은 항상 남자였고, 남자들의 이야기였다.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비정상회담>, <냉장고를 부탁해>도 똑같았다. 즐겨보는 프로그램들은 죄다 남자들 판이었고, 남자 이야기가 넘쳐났다. 남자들이 요리를 하고 아이를 키우고 도전을 하면 칭찬 받았다. 사실 여자들은 늘 하는 일인데, 한 번도 칭찬받은 적 없었다. 여행을 떠나고 논쟁을 하는

일은 여성들도 하고 싶는데 그들에게는 똑같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 여성 대중예술인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왜 그들에게 마이크와 카메라를 안 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다. 2007년 시작한 <무한걸스>가 있긴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왜 여성 대중예술인 중에는 강호동이 없고, 김구라가 없고, 유재석이 없고, 신동엽이 없었을까. 따지고 보니 주병진도 이경규도 없었다. 왜 김미화, 박경림, 박미선, 이경실, 이성미, 이영자, 조혜련, 정선화는 이들을 대체하거나 이들만큼 맹활약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커졌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능력이 없어서는 아닐 것 같았다. 아이를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되기도 했고, 여성의 외모를 따지는 남성중심사회의 기준도 무관하지 않아 보였다. 예쁘거나 고분고분하고 섹시한 캐릭터만 요구해온 분위기도 공범이었다. 기회를 주지 않고, 키우지 않는 사이 지쳐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안할 수 없었다. 배우들도 마찬가지였다. 왜 고현정, 김혜수, 전도연은 이병헌, 최민식, 한석규만큼 많은 영화에 출연하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누가 마이크를 쥐고 있는가 만큼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도 중요했다. 확실히 여성에 대해서는 외모와 몸매를 따졌다. 여성은 누군가의 연애 상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면 어머니였다. 한 사람의 개인으로, 능력 있는 대중예술인으로만 보여주는 경우는 드물었다. 외모를 부각시켜 성애화하거나 가족 안에서만 보여주는 방식은 한 사람이 지닌 매력을 깎아내리며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대중문화 속 여성은 사랑하는 남자 없이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을 때가 많았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마이크는 남성들이 쥐고 있어 여성들이 닦아채 항변하거나 대항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세상은 좀 더 많이 흔들렸다. 변화는 눈에 보일만큼 선명해졌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시작한 팟캐스트에서부터 지진을 만들어낸 송은이와 이미 오래전부터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는 톱스타였던 이영자가 성큼 달려왔다. 감출 수 없는 재능과 끝없는 노력으로 김신영과 박나래는 드디어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오래도록 곁에 있었음에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박미선은 EBS <까칠남녀>와 <거리의 만찬>에서 끝끝내 한 사람의 여성 연예인이 만개한 순간을 보여주었다. 아니 박미선이 원래부터 탁월했음을 새삼 인정하게 했다. 그의 진면목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비로소 깨달았다. 기회를 얻지 못해 보여주지 못한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여성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았을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제라도 <밥 블레스 유>나 <전지적 참견시점> 같은 프로그램이 생기고, 여성 대중예술인들에게도 마이크를 주는 변화는 정말 소중하다. <캠핑클럽>이나 <나 혼자 산다> 등에서 성인 여성의 삶과 교감, 연대를 보여주는 방식은 예전과 다르다. 그들은 더 이상 연애와 결혼에 매이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밥 블레스 유>에서 이영자가 수영복을 입고 등장했던 순간은 눈부셨다. 그리고 <캠핑클럽>에서 나이든 핑클 멤버들은 수없이 반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

었다.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면서 상대 여성의 삶을 응원하는 여성들은 한국 문학과 영화에서도 트렌드를 주도한다. 지금 거의 모든 장르에서 가장 문제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 여전히 <미운 우리 새끼>, <슈퍼맨이 돌아왔다>, <몽쳐야 찬다>, <아는 형님>을 비롯한 다수의 TV 프로그램은 남성 출연자들이 주도한다. 성 역할을 나누고, 이성애에 기초한 결혼 담론을 지향하며 다른 방식의 삶을 보지 않으려는 태도는 지겹다. 나이와 경력으로 서열을 정하는 방식도 싫고, 익숙한 남성출연자들에게만 마이크를 주는 방식은 구태의연하고 게으르다. 왜 방송은 세상만큼 바뀌지 않는 것일까.

이제서야 여성들이 대중문화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면, 아직 이만큼 기회를 얻지 못한 소수자들도 있다.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와 장애인들이다. 사실 일반적으로 성소수자의 비율은 10%에 달한다는 의견을 감안하면, 성소수자는 수적으로 소수자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로 인해 이들은 침묵하는 소수자의 위치를 강요당한다. 그러다보니 성소수자가 드물고 희한한 존재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한국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공개한 대중예술인이 겨우 하리수와 홍석천 뿐이라는 사실은 한국사회가 얼마나 이성애 중심적이고,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공격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인지 반증한다. 최근 <로렐>, <아가씨>, <캐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을 비롯한 성소수자의 삶과 사랑을 다룬 영화들이 늘고 폭넓은 사랑을 받았지만, 영화의 문제의식이 다른 대중예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몇몇 문학작품과 EBS <까칠남녀>, KBS <거리의 만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준 정도이다. 해마다 퀴어 퍼레이드에 성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차별금지법조차 만들지 못한 사회는 갈 길이 멀다. 젊은 세대에서는 이미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는데,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핑계 삼는 태도는 인권을 옹호하고 지키려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인권은 협상이나 합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대중문화에서 성소수자를 표현할 때도 스테레오 타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들의 보편적인 모습과 차이를 존중하며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커밍아웃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장애를 극복해야 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대중문화에는 최소한 존재하는 만큼의 목소리와 정체성과 가치가 판을 벌이고 존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공존을 위해 자리를 만들고 독식했던 마이크를 내줄 때다. 우리는 더 많은 이들을 만나고 싶고, 누구도 즐거움을 독식할 권리는 없다.

다양성으로 본 장애인예술

방귀희(사/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대표)

1. 들어서며

장애인은 사회적 배제를 받고 있다. Room(1995)은 사회적 배제란 사회적 권리의 부정이며 비현실이라고 하였듯이 장애인 배제 현상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왜 장애인은 배제의 형식으로 차별을 당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몹시 낯설어하기 때문이다.

왜 낯설음을 싫어하는 것일까? 그것은 낯설음이 주는 긴장감 때문이라고 한다. Parker J. Palmer가 말했듯이 민주적 마음의 습관은 다양성에 대한 환대가 기본이다. 그렇다면 아직 민주주의가 미숙해서 다양성을 낯설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원숙한 민주주의 실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예술인의 사회적 배제가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받는 차별보다 더 노골적이고 즉각적인 것은 예술이 관객과 함께 해야 하는 대중성 때문이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 인식과 예술을 삶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예술인은 무능력한 장애인 이미지와 비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예술인 이미지가 겹쳐져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장애인예술인이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중적인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예술인은 정책 부재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장애인예술인을 전문예술인으로 보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예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다는 것도 큰 어려움이다(박영정, 2006). 영국의 대표적인 장애인예술인 Sutherland(2005)가 '장애인예술은 장애인의 소일 거리를 위한 취미가 아니다. 그리고 치료도 아니다. 장애인예술은 그냥 예술이다' 라고 하였듯이 장애인예술이 예술이란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장애인예술이 수월성을 갖고 발전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 장애인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도 세워놓지 않고 있다. Ryerson University(2004)에서 제시한 장애인예술 발전의 3단계를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장애인예술인 자신이 예술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장애인 커뮤니티에서 장애인예술인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장애인예술인의 활동이 주류 예술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3단계를 밟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인 장애인예술인의 정체성을 먼저 구축하여야 하는데 장애인예술인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고 장애인예술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예술이 표류하고 있어 장애인예술인의 소중한 창작 활동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2. 장애의 문화적 관점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정의는 매우 중요한데 장애의 개념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WHO(2001)가 제시한 장애에 대한 국제 표준인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에 따르면 장애는 신체의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와 함께 상황적으로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상황에 따라 장애가 심각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여 상황에 따른 장벽을 제거해 주기 위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 장애인계의 주장이다.

장애 개념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장애인복지의 관점이 달라지며, 장애인복지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어서 장애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장애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틀로 장애모델을 형성하고 있는데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17, 18세기의 자유주의 사상과 사회 적응의 실패를 개인의 능력으로 본 진화론적 사상에서는 장애는 개인의 문제였기에 이 시기에는 장애인 개인의 신체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의 의미로 장애를 바라보는 장애모델로 개인적 모델(의료적 모델)이 중심이 되었다.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재활을 목표로 하는 이 개인적 모델 시기에는 장애인 개인의 의지와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장애인복지를 위한 실천모델이 개인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였는데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의 문제를 사회적 환경의 문제로 보고, 장애인 문제의 해결은 장애인 자신이 권리의 주체로서 차별 철폐를 위해 자조적으로 권익 옹호 활동을 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것이 목표이었다. 사회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평등한 제도와 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도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바뀌었다.

사회적 모델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풍부하게 발전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철학이 생겼고, 개인의 행복과 성장을 위하여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창의성이란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로 창의성이 존중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애모델이 바로 문화적 모델(Devlieger, 2005)로 문화적 모델의 등장은 장애에 대한 관념 즉 정상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와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장애를 문화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장애가 복잡한 사회적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Devlieger(2005)는 기존의 지배적인 장애모델보다는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면 문화적 모델을 제시한 것인데 장애인에게 잠재되어있는 창조적 요소들을 언급하며 문화적 모델은 장애인을 하나의 존재 양상으로 보고 있다.

장애의 의미란 본래 문화의 일부로서 이해되어야만 하기에 새로운 장애모델로 제시된 문화적

모델은 정체성, 내러티브, 개인의 목소리라는 개념이 중심이 되고, 이런 문화적 모델은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이념과 결합되어 열린 다원화의 체계를 만들어내며, 열린 체계는 새로운 이념들을 발전시키고 다른 규칙들을 생산한다.

문화 현상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화적 현상이 그 이전의 모더니즘에 비하여 어떻게 다른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일원론보다는 다원론을, 이성보다는 감성을, 전통의 유지보다는 해체를, 그리고 독단주의보다는 관용주의를 더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삼아 문화적 모델이 지향하고 있는 다양성의 인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양해림, 2003).

문화적 모델은 장애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사회적 관계에서 생긴다고 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제도, 사람과 조직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서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한다. 따라서 문화적 모델은 장애인의 잠재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여 문화라는 포괄적인 공간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며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3. 장애인예술 개요

1) 장애인예술의 정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의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자로 한다'를 사용하고, 예술은 사전적 정의인 미적(美的)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 활동 외에 예술은 창작을 통한 성과를 말한다 는 정의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예술이 결합된 장애예술인은 예술활동을 하는 장애인을 뜻한다.

영국예술위원회에서 정의한 장애인예술(Disability Arts)은 장애인의 문화와 개성, 장애의 정치적 체험, 장애와 구체적으로 연관된 예술 내부에서 생산된 작업 등을 반영하는 장애인에 의해서 생산된 예술 작품이고, 예술에 장애인의 참여를 지원해주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동안 장애인문화예술이란 용어를 사용하다가 <한국장애예술인백서>(한국 장애인문화진흥회, 2012)에서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장애인예술로, 예술활동을 하는 장애인을 장애예술인으로 지칭하기로 정하여 공론화되고 있다.

2)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의미

사람이 어떤 주제 의식을 갖고 탐구를 한 경험은 창조적인 결과를 얻기에 탐구의 완성은 예술이라고 한다(김연희, 2012). 예술의 본성은 실존의 문제와 연결시켜 삶의 의미를 밝히고 강조하는 것이기에 예술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박준원, 2003).

예술은 예술인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조와 그렇게 만들어진 예술작품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느끼는 관객의 향유로 존재하기에 예술은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갖고 있어 예술 활동은 경제를 살리는 견인차가 되고 예술의 확산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만족감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치료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 문화적 유산이 된다.

예술인 자신은 어떤 목적을 갖고 창작 활동을 하기보다는 창의적 자아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한 개인이 내적으로 느끼는 것을 외화(外化)하는 것이 예술이며, 예술이 창의적 자아 표현이라는 것은 장애인예술이라고 예외는 아니기에 장애인예술인은 사회적 접근성이 부족하고 교육, 훈련 등의 영역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Basas, 2009).

Epstein(2000)은 장애인예술은 장애인의 삶 뿐만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됨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자극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이 작품의 대상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작품을 써야 한다고 하면서, 장애인이 예술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과 강점을 표현하고 활동하며 사회를 교육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영국의 장애인운동가 Finkelstein과 Morrison(1993)도 비극적인 장애인 이미지나 인간 승리의 신화를 벗어나고 장애인을 인간 자체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예술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예술인의 창작활동은 일반예술인의 창작활동과 그 의미가 다르지 않으며 장애인 차별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기에 장애인예술인의 창작활동은 매우 큰 가치가 있다.

3) 장애인예술 영역

(1) 문학

1980년대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장애인이 책을 출간했다는 소식이 간간히 소개됐다. 장애가 심해서 정규 교육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강동석이 장편 소설을 썼다든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추락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김옥진이 <산골소녀 옥진이 시집>을 출간한 것은 큰 화제가 됐다(1987). 그밖에도 뇌성마비 소설가 김재찬 씨가 『문학정신』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1987), 지체 장애인 강종필이 1990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희곡에 당선, 1991년 김래성 추리문학상 수상자 이승영 씨가 근육병 장애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장애인의 문학 활동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2015년 세계일보에서 제정한 상금 1억원의 세계문학상 대상 주인공이 목발을 사용하는 김근우라는 사실이 세상을 놀라게 하였고, 2018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동화 당선자에 행글라이더 낙하사고로 척수 장애인 허용호가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끄는 등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장애인문학이란 것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1991년 봄 장애인문학을 표방한 『숫대문학』이 창간되면서부터이고 단 한번의 결간 없이 25년 동간 발간하면서 장애인문학이 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숫대문학』은 원로 구상 시인이 2004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탁한 2억원으로 상금 기금을 마련해서 2005년부터 숫대문학상에서 구상숫대문학상으로 이름을 바꾸어 매년 시상하고 있는데 이 상은 권위있는 문학상이 되었다.

장애인문학 발전은 장애인문학 도서의 양적 확대에서도 잘 나타난다. 1993년 『숫대문학』 통권 9호에 장애인문인이 출간한 작품 분석 내용을 보면 『숫대문학』에서 수집한 장애인도서가 130권이었는데, 2012년 <한국장애인문학도서총람>의 도서목록에는 927권이 기록되어 있고, 2015년 숫대

문학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한 장애인도서는 1,924권에 달해 장애인문인의 작품 활동이 매우 활발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문학이란 새로운 장르를 구축하게 한 『숫대문학』은 문화계 블랙리스 사건으로 2015년 겨울 100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는데 미국 스탠포드대학 도서관에서 『숫대문학』의 가치를 인정하여 연구 비치용으로 한질을 구입하여 장애인문학이 국제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17년도 가을 『숫대문학』에 평론 역할을 강화시킨 『숫대평론』을 1년에 2회 발간하는 형태로 창간하여 장애인문학 신작과 장애인문학 주제 논문 그리고 『숫대문학』 수록 작품에 대한 평론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장애인문학을 확장하였으며, 2019년 장애인문학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학에 관심이 있던 국문학과 문예창작학 전공 교수들이 모여 장애와문학학회를 창립하여 장애인문학 연구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2) 미술

장애인미술에서 한 가지 독특한 것은 그림을 손이 아닌 다른 신체를 사용해서 그리는 것에 따라 구필화가나 족필화가로 구분이 된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면 구필, 발가락에 붓을 끼우고 그림을 그리면 족필이 되는 것이다. 구필이나 족필 화가를 통틀어 구족화가 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3명(정회원 7명)의 구족 화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화의 거장 윤보 김기창 화백이 청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은 청각장애인 화가들이 1988년에 농미회를 결성하고 한국농미회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장애인미술은 초창기에는 화가 개인이 개최하는 개인전시회가 많았는데 점차 소규모 그룹활동(소울음, 그림사랑, 선사랑 등)을 해오다가 1995년 한국장애인미술협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 활성화되었고, 2019년에는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초대작가와 추천작가들로 구성된 한국장애인전업미술가협회가 창립되어 전업작가로서의 활동을 다지고 있다.

최근 들어 발달장애화가들의 활동이 활발하여 한부열, 이다래 등이 개인 전시회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고, 발달장애화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디스에이블드(this abled)와 사회적협동조합 아르브뤼코리아에서 발달장애화가들의 작품을 상품화하여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3) 음악

청력이 발달한 시각장애인들이 음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피아노, 바이올린, 클라리넷 등 연주를 하는 시각장애 음악인들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한편 시각장애 음악인들로 구성된 한빛예술단,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 국내는 물론 해외 공연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드림위드앙상블, 비바챔버앙상블, 아트위캔(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등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국악인으로 최준, 장성빈, 이지원 그리고 클라리넷 연주자 은성호, 첼리스트 배범준과 이재원 등 발달장애음악인들이 속속 탄생하고 있다.

대중적인 음악 활동을 하는 장애인음악인이 많다. 1970년대에 인기를 누리던 가수 이용복은 시각장애인이고, 1980년대 많은 사랑을 받은 조덕배는 지체장애인이다. 그리고 인기 듀오 클론의 강원래는 2000년도 교통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올랐고, 2012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더클로스의 김혁건도 복부를 압박하는 특수 장치를 이용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밖에 지체장애가 있는 테너 최승원은 세계적인 성악가로 명성을 얻으며 큰 사랑을 받았고, 그후 휠체어를 사용하는 성악가 황영택과 대중가수 배은주 그리고 시각장애인 가수 김지호 등이 음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된 세한대학교 실용음악과 정상일교수가 2016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100명으로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을 창단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공연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2017년도에는 미국 카네기홀에서 열린 세계합창대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의 일치된 화음으로 기립 박수를 받으며 국위를 선양하였다.

(4) 공연예술

2008년 클론의 강원래가 재능 있는 장애인예술인들을 모아 ‘꿈따리유랑단’을 창단해서 전국을 돌며 순회공연을 하면서 장애인예술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같은 해 kbs 장애인가요제 수상자들이 모여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을 창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예술을 대중화시켰으며 장애인 사물놀이 ‘땀띠’의 공연도 눈길을 끌었다.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과 장애인극단 ‘애인’에서 정기 공연을 하며 장애인연극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장애인무용은 청각장애인 발레리나 강진희와 현대무용가 고아라 그리고 휠체어 댄서 김용우, 뇌성마비 퍼포머 강성국의 활동으로 대표될 수 있고, 다운증후군 강민휘가 영화〈사랑해 말숙씨〉에서, 뇌성마비 배우 길별은은 드라마〈갑동이〉에 등장해서 열연을 하기도 하였다.

4) 장애인예술 실태

장애인예술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예술인 인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장애인예술인 인구 파악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 인구도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수를 말하기 때문에 장애인계에서는 인구의 10%를 장애인 인구로 주장하고 있다.

방귀희(2013)는 장애인예술인수를 예술인 인구에 장애출연율을 곱하여 1만여명으로 추산하였고,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예술인 5,972명, 장애인예술 활동가 2만6천명으로 장애인예술 인구를 3만2천여명으로 발표하였다. 이렇듯 적지 않은 수의 장애인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예술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박혜신(2010)에 따르면 같은 공연을 감상하였어도 예술인이 장애인임을 알 때 더 감동을 받고 흥미롭게 본 것으로 나타났지만(73.3%) 예술인의 전문성 평가 항목의 평균은 아주 낮았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예술인을 전문예술인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인식 때문에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예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고 그로 인해 장애인예술인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예술인 복지를 외면하고 있고, 장애인예술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해 함께누리사업을, 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일 뿐 뚜렷한 장애인예술정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4. 장애인예술 발전 방안

장애인예술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예술정책과이다. 2013년 장애인문화예술 업무가 체육국에서 예술국으로 이관이 되어 장애인예술이 예술정책 차원에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되면서 장애인예술정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지만 예술정책과에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단 2명이 장애인예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체육국에 장애인체육과가 있듯이 예술국에 장애인문화예술과가 설치되어야 장애인문화예술 업무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장애인예술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은 장애인예술 관련 독립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다. 장애인예술인지원법률 제정을 2012년부터 준비하여 국회 법안 소위까지 가는데 8년이 걸렸는데 제정을 눈앞에 두고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서 폐기 처분이 되었다.

「장애인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장애인예술인창작지원금제도, 장애인예술인을 지원하면 고용으로 간주하는 장애인예술인지원고용제도 그리고 장애인예술인들에게 일정 비율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장애인예술공공쿼터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장애인예술을 모두를 위한 예술(Arts for all)로 인식하고 있고, 영국은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에서 장애인예술을 위해 장애평등계획(Disability Equality Scheme)을 세워서 장애인예술의 차별을 없애는 등 장애인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장애인예술을 문화 다양성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장애인예술을 예술의 특성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장애인예술 소비 문화가 확산되어 장애인예술이 낯설지 않은 사랑받는 또 하나의 예술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파커. J. 팔머, 김찬호 역, 글항아리, 2012.
- 「장애인예술론」, 방귀희, 도서출판 솟대, 2019.
- ‘2018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문화다양성

장현선 ((주)장앤파트너스그룹 대표)

바이러스로 주목받는 공동체의 가치

COVID19가 바꾸어놓은, 또한 앞으로 더 많이 바뀌어질 일상이 주목받는 요즘이다. 혹자는 ‘준비되지 않은 미래’, ‘급격히 당겨진 변화’라는 문구로 COVID19를 이야기한다. 문화다양성에 관한 글에서 갑자기 바이러스라니, 이상하게 읽힐 수 있겠다. 하지만, COVID19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에 대해, 우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당겨진 미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COVID19로 인한 긴급생활지원금의 대상을 미등록 체류 외국인에게도 지급하기로 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월 3일 통과¹⁾ 되었는데, 이는 우리가 인식하는 공동체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 그리고 문화다양성

이제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공동체로 대응해야 하는 긴급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로서의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인식, 사회 안에서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로 인해 공동체가 상호 소통하며,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느냐가 나의 생명과 생존에 직결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유네스코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²⁾를 공표하였는데, 빈곤, 양성평등, 불평등완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등 한 사람의 발전과 변화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그림] UNESCO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7개

1) 경기신문, 2019.05.03.

2) 2015년 제 70차 UN총회, 유네스코(2015)

문재인 정부는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³⁾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성하는 13개⁴⁾를 발표해 우리 사회의 혁신이 다양성의 기반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표] 사회적 가치의 13개 구성요소

1.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2.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3.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4.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6.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7.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8.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9. 경제적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10. 윤리적 생산·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11.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12.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13. 그 밖에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의 강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화다양성은 사라져가는 소수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협의의 해석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하나로 호출된다.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문화다양성

우리 사회 혁신의 방향으로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 지역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공시하는 자료를 통해 지역의 기본 구성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2>와 같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단위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대적 비교를 위한 순위를 계산해 보면 우리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다.

충청권 내에서도 인구구성의 특징에 따라 다른 지역적 이슈

충남은 면적이 넓으나 인구수가 늘지 않고 고령화가 많이 진전된 지역으로 15세 미만 인구 비율 또한 낮다.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어 인구대비 비율이 높고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자녀의

3) 국무회의, 2018. 1.

4) 사회적 가치의 이해, 행정안전부(2018)

[표2] 데이터로 보는 충청권의 특징

순위	면적	① 인구 수		② 세대			③ 소득		④ 장애		⑤ 외국인 주민수	⑥ 한국국적 미취득 외국인				⑦ 한국 국적 취득자	⑧ 외국인 자녀	⑨ 북한 이탈 주민
		총 인구수	인구 밀도 (명/km ²)	15세 미만	65세 이상	55-64 세	1인당 소득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	장애인 수	배리어 프리 인증수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1	경북	경기	서울	세종	전남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기	충남	충남	제주	서울	서울	인천	전남	인천
2	강원	서울	부산	제주	전북	강원	서울	광주	전북	전남	경기	경기	충남	대전	경기	경기	전북	충북
3	전남	부산	광주	광주	경북	경북	충남	전남	경북	경북	제주	제주	경기	전북	충남	서울	충남	경기
4	경남	대전	대전	경기	강원	전남	경기	부산	강원	서울	서울	경남	인천	경북	인천	충남	제주	서울
5	경기	인천	대구	울산	충남	서울	세종	대구	충남	경남	충북	충북	전남	광주	충북	충북	충북	충남
6	충남	경북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전남	강원	충북	강원	인천	경북	서울	부산	울산	전남	경북	강원
7	전북	대구	경기	경남	충북	전북	경남	경북	경남	인천	전남	전남	전북	충남	울산	전북	경남	제주
8	충북	충남	울산	인천	제주	충북	충북	경북	인천	충남	충남	인천	충북	세종	경남	제주	인천	울산
9	제주	전북	세종	충남	경남	경남	충북	대전	대구	대구	전남	서울	경남	세종	경남	경남	강원	대전
10	인천	전남	제주	충북	대구	울산	인천	충북	부산	전북	전남	울산	강원	경북	울산	울산	광주	경북
11	울산	충북	경남	전라	서울	인천	제주	제주	대전	충북	전북	울산	세종	충북	광주	경기	전남	광주
12	대구	강원	충남	대구	광주	충남	대전	경남	인천	충북	세종	전북	세종	대구	대구	광주	전남	전남
13	부산	대전	전북	전남	대전	대전	광주	충남	광주	부산	광주	광주	강원	경기	전남	광주	경남	경남
14	서울	광주	충북	강원	인천	제주	경기	서울	울산	울산	대전	부산	광주	대전	강원	대전	세종	부산
15	대전	울산	전남	경북	경기	경기	경기	부산	경기	대전	대전	강원	대전	울산	강원	세종	대구	전북
16	광주	제주	경북	서울	세종	광주	경기	울산	서울	세종	대전	대구	대전	전남	부산	부산	서울	대구
17	세종	세종	강원	부산	울산	세종	전북	세종	세종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경남	부산	대구	부산	

데이터 출처

- ① 인구 수 : 통계청(2018) 자료 기준, 총 인구 수의 순위 및 면적(km²) 대비 인구 수
- ② 세대 : 통계청(2015) 자료 기준, 총 인구 수 대비 세대당 인구 비율
- ③ 소득 : 행정안전부(2018) 자료 기준
- ④ 장애 : 장애인 수 - 통계청(2019) / 배리어프리 인증수 - 한국장애인개발원(2020. 04. 22. 기준)
- ⑤ 외국인 주민수 / ⑥한국국적 미취득 외국인 / ⑦한국 국적 취득자 / ⑧ 외국인자녀 : 행정안전부(2018) 자료 기준, 인구대비 외국인 수
- ⑨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2019) 자료 기준

비율이 높아 인종의 다양성이 눈에 띄는 지역이다. 또한 1인당 소득은 높은 편이나, 수급자 비율 또한 높아 빈부의 격차가 높다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충북은 충남보다 면적이 좁으나 인구수가 낮아,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그러나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 세대간 차이에 따른 갈등이 예상되며, 이러한 갈등요인은 55~64세의 준고령인구 비율 또한 높아,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 수는 전국에서 중간 정도로 높은 편이나,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인증 수는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장애인의 이동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구대비 외국인 주민수가 충남보다는 낮으나 전국대비 높은 수준이며,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은 전국에서 인천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광역시인 대전은 높은 인구밀도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쉬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15세 미만의 인구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충청권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이슈가 크지 않다. 1인당 소득은 높지 않으나, 수급자의 비율이 높은 대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구대비 외국인 수 비율 또한 높지 않으며, 유학생의 비율이 인구대비 매우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장애인 수가 전국에서 중간 정도로 높은 편이나, 배리어프리 인증수가 타 지역대비 낮아, 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주목해 볼 만하다. 세종은 특별자치시로서 많은 인구가 이주하면서 만들어진 도시로 15세 미만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젊은 도시이며, 1인당 소득이 높고, 수급자 비율이 매우 낮아 소득수준의 편차가 크지 않다. 또한 장애인 수가 낮고, 외국인 주민수 또한 낮은 편으로 인구구성에서 동질적인 성향이 높은 지역이다. 인구구성에서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요인을 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지역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확인이 필요

이러한 인구구성의 기본적 특징으로만 문화다양성에 관련된 방향성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2020년 5월 현재 문화다양성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전국 16개 지자체로 이 중 4개 지역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충북, 세종이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에 명시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시행한 지역이 없는 실정이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지역의 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현안과 지역의 특징이 반영된 문화다양성 정책 및 사업의 방향성을 설계하는 데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의 일부 데이터는 광역단위로만 공표되고 기초단위의 세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수립을 이제는 지역이 주체적으로 나설 차례이다.

충
남
/

- 김정혁
(現 (주)자이엔트 대표, (재)충남문화재단 비상임이사, 삶기술학교 설립자)
- 이재남 (동네형아 대표)

“나만의 삶, 그 무엇 - 제 삶 지대, 대안적 삶을 찾아서”

김정혁(現 ㈜자이언트 대표, (재)충남문화재단 비상임이사, 삶기술학교 설립자)

우리나라는 한 세대 만에 OECD 경제 강국으로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급진적인 성장을 이뤘다. 2011년 대학연수로 필리핀에 간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경험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20대 청년들의 자살률 부동의 1위이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이후 엘리트주의가 팽배해 있을 때 부모세대들은 IN서울로 대학진학을 강조했다. 겉으로는 우리 아이의 건강과 예절이 최고라지만 명문대에 들어가 전문직을 얻는 게 부모님의 소원인만큼 우린 열심히 책상 앞에서 필승을 다져야 했다. 하필 나 같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건강하여 핑계도 대지 못하니 ‘학업’만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대학 진학 후에도 구직난을 겪는 선배들을 보며 ‘멈춤’ 없이 다시 도서관에 앉아 ‘취업’을 준비해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직접 ‘헬조선’이라 불리는 사회를 맞이한 것이다. 사회는 이런 청년들을 취업도 포기, 결혼도 포기, 자녀도포기한 삼포세대라고 이야기 한다.

대학진학으로 도시의 진입에 성공했지만 일상은 월세 내기도 뻣뻣하다. 직장생활을 하는 ‘도시 청년’들은 강남의 빌딩은 그림의 떡인 현실을 체감한다. 아무리 월급을 모아도 ‘부모세대’보다 더 큰 부의 기회를 얻게 될 거라는 꿈은 일찌감치 포기한다. 어렵게 취업한 회사는 2년 만에 하루하루를 지친 삶을 살며 퇴사충동에 휩싸인다. “삶이 도대체 뭐 길래?” 한탄하며 짐을 싸 고향으로 돌아가는 열차에서도 결국 ‘나’의 삶의 방향인 도시로 다시 선로를 바꾼다. 지역으로 돌아가면 실패한 아들딸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다. 우린 금수저가 아닌 이상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못 사고 외제차를 타는 건 일찍이 체념했다. 그럼에도 디지털환경에 익숙한 밀레니엄 세대들은 대기업 고연봉은 아니어도 하루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잔은 필수다. 밤에는 넷플릭스에서 디지털콘텐츠를 소비하고 배달의 민족 앱으로 야식을 시켜먹는다. 그 순간이 요즘 청년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 주말이면 이태원에서 클럽음악과 함께 또래들과 흥으로 에너지를 쏟고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 길 카드내역을 보며 허탈함을 느낀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무조건 통장잔고를 탈탈 털어 유목민들의 성지인 해외로 배낭여행을 간다. 이런 일시적인 이벤트도 잠시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

“잠시 쉬어가는 대안적 삶, 미래로 가는 ‘기회’”

‘이사’는 일상의 물리적 조건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몇 안 되는 사건이다. 도시의 청년들은 삶의

변화를 꿈꾸지만, 자발적인 이사는 드물다. ‘이사’를 염두 해 두고 살림을 장만하거나 장만하지 못하고 살다가 월세가 올랐거나 계약이 끝나 비자발적인 이사를 겪게 된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도시 안으로 내몰려 살아간다. 이직이나 결혼이라는 큰 사건이 있어야만 다른 도시에 살아 볼 기회가 겨우 생긴다. 서울이 아닌 모든 지역이 ‘지방’으로 통하는 이 좁은 나라에서는 타 도시의 삶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도시를 떠나는 청년들도 있다. 이미 포화상태인 도시 안에서 치열한 경쟁에 지치거나 그럴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게 된다. 지친 도시의 삶에서 대안적 삶을 필요로 하는 탈자본주의, 탈물질주의 현상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빨리 도달하는 것이 더는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에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삶의 행복을 느리지만 천천히 찾는 청년들이기도 하다. 이 청년들은 삶의 또 다른 대안지로 지역을 찾는다. 다른 방식으로 청년들은 지역으로 보내지고 있기도 하다. 청년들을 지역으로 인도하는 정책들과 예산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지역에 미래가 있다고 어렵פות한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미래를 만들어야만 하는 시대이다.

“나만의 삶을 기술하다.”

나는 이런 시대에 개척자가 되고 싶은 지역의 문화기획자 청년들을 모아 2019년에 ‘삶기술학교@한산캠퍼스’를 설립했다. 삶기술학교는 개척의 땅인 시골마을 한산면에서 서로의 삶의 기술을 교환하며, 자신의 삶을 실현하는 행복한 자립공동체를 목표로 한다. 청년들은 대안적 삶을 통해 ‘나’를 찾고 마을의 자립기술을 배우며 나의 삶을 완성해 본다. 이 ‘지역살이 큐레이션 서비스’는 고학력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열심히 쌓은 자신의 기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안내했다. 또한, 마을의 저 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소멸되어 가는 지역이지만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재된 한산모시짜기와 마을에 70개 양조장이 있는 1500년의 역사 소곡주 등 전통기술과 다양한 생태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마을의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청년들의 삶기술이 마을이 된다.”

서천군 한산면은 인구가 약 28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지방소멸의 고위험에 놓은 서천군은 청년 세대들이 다 빠져나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심각한 쇠퇴도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오래된 삶의 방식대로 존재하는 누군가들의 삶에 의해 지켜야하는 것들의 명맥을 이어가며 살아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산 모시짜기 기능보유자 방연옥, 100년의 역사 아성대장간 김창남, 1500년의 술의 역사 한산소곡주를 우희열, 서천부채장 이광구 명인들이 살고 있는 전통도시이기도 하다. 삶기술학교는 교수도 학생도 없는 마을이 전부 배움의 캠퍼스다. 참여한 청년들은 마을에서

‘한달살기’를 통해 삶지니(삶엔지니어의 약자)가 되어 자립하기 위한 나만의 삶기술프로젝트를 실험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며 빈집문제, 일자리문제, 지역 격차를 해소해 나간다. 청년들의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과 공감과 위로를 받고 우정을 쌓아가며 마을 주민들과 공동체를 회복해 나아간다. 2019년 3기수 동안 93명이 입학해 47명이 정착 활동을 했으며, 15명이 일자리 형 이주민으로 완전히 정착했다. 그리고 마을에 빈집문제를 10개소 이상 해결했다. 또한, 교육격차가 심한 시골마을에 청년들이 마을 강사가 되어 소득도 벌고 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 단 한 달, 청년의 삶이 바뀌고 지역이 바뀐다.

“지역살이는 도피처가 아닌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일.”

하지만 막연하다. 군 입대 또는 짧은 여행이 아니라면 시골에서의 하룻밤 경험도 없는 도시의 청년들에게 지역살이는 이민과도 같다. ‘리틀 포레스트’ 처럼 막연한 로망의 공간으로 여겨지기 쉽다. 귀농·귀촌을 꿈꾸던 청년들이 지역의 텃세에 좌절하여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도 하고, 원하는 일자리와 커뮤니티가 없어서 다시 고립의 삶을 반복하기도 한다. 지역은 도시의 삶에 지친 청년들에게 대안적 삶이 가능한 ‘제3지대’로서 제안되어야 한다. 치열한 현실공간과 막연한 로망 공간 사이의 그 어딘가. 생존이 가능한 실험지, 삶의 문법들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도의 공간으로서 지역을 바라봐야한다. 촌스러운 것으로만 인식되는 오래된 삶의 태도들을 새롭게 바라볼 지혜로운 눈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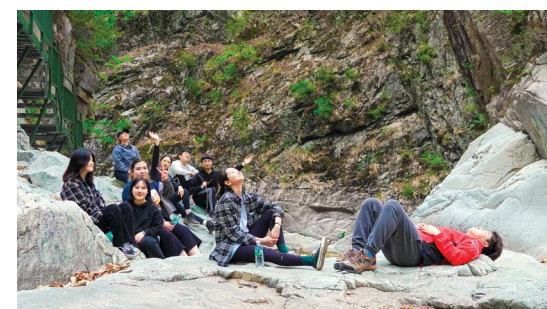
결국 언제나 어느 공간에나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곳엔 먼저 누군가 살고 있었고, 누군가는 새로움을 꿈꾸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낯선 공간에서 삶의 확장하기도 혹은 연결해 내기도 한다. 이것이 문화기획의 시작이다. 사람의 손으로 일군 농업에서부터 출발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기술로 문화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다양한 혜택은 다시 사람에게 균형 있게 돌아가지 못한다. 지역 문화 격차 해소야 말로 행복한 삶으로 가는 유토피아이다.

“문화다양성 시대, 청년이 생각하는 미래 도시를 꿈꾼다.”

문화다양성은 다음 세대들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기득권들에게 전하는 간절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UNESCO 문화다양성 선언문에는 ‘한 사회의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이며,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 전통과 인상 등을 포함하는 포괄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 뜻은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다는 전 세계적인 메시지이기도하다. 나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 사회를 이룩해 온 정해진 프레임을 인정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발전된 모습 이면에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직면해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것을 바꿔보고 싶은 용기로 창업을 시작 했다. 지역에서 ‘문화’를 창작해내는 일로 말이다. 지역이 청년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일에 8년 동안 도전해 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정체성과 주체성 있는 그 당시 청년기획자들이 혁명적으로 사회를 주도했다. 일제 강점기엔 ‘독립운동가’가 국가를 되찾았고 한국전쟁 땀 ‘참전용사’들이 국가를 지켰으며 독재정권 땀 ‘민주화운동가’들이 민주사회를 이룩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빠르게 추진 온건 ‘기업인’이 있어서 이다. 하지만 열심히 양적인 경제발전 성장에만 집중해 온 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적인 것이 따라오지 못했다.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질은 OCED 기준 낮은 순위다. 다음은 어떤 청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갈까?

문화다양성시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문화도시를 이룩할 ‘청년문화기획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받는 평화로운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주목해야한다. 특히, 글로벌 마인드와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청년 혁신가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잘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스웨덴의 말뫼 도시가 청년세대들에게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보자고 도시 전체를 시험대로 주고 지금 전 세계인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된 것처럼 공공과 지역의 리더들은 단순히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우거나 정치적인 이용수단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들 주는 메시지에 경청해야한다. 기성세대들과 이들이 경쟁 상대로 내 물리게 하는 것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혜로운 경험을 융합해 청년세대와 기성 세대의 융합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들어 나간다면 지역의 건강한 문화생태계가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를 창조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참고 인용

- < 제3지대 인터뷰집 1호@한산 >에서 발췌

‘지역문화기획-〈사람책 도서관〉, 지나온 이야기’

이재남(동네형아 대표)

* 사람책 도서관 (Human library) 프로젝트 :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을 마치 책처럼 대출해 책처럼 그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의 프로젝트. 덴마크에서 인권 교육 프로젝트로 시작했으며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표지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Unjudge someone”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라) 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다)

※ 출처 : 한국사회복지저널 (<http://www.ksw-news.com>)

어느 날 문득 항상 잘하기 위해서 지치고,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창업을 해야겠다’ 막연하던 창업의 꿈이 현실로 왔을 때, E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사람책을 처음 접했습니다. 낯설었지만 설렌 단어 “사람책” 그리고 사람책의 마음에 와닿은 핵심 **“누구나 훌륭한 권의 책입니다.”**

늘 생각해보던 사회의 소통문제와 내가 해보고 싶었던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책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형아의 사업 첫 아이템은 “사람책”이었습니다.

동네형아는 청년이 시골에서 잘사는 유행을 만들어보자는 각오로 “지역청년을 모아 문화를 만들고 마을을 바꾸다”라는 소셜미션을 가지고 청년들이 운영하는 재충전콘텐츠 제작(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처음에 사람책 아이템을 바탕으로 기업의 이름을 고민하면서 내가 어릴 적, 누구에게 문화를 배웠는가 떠올리며 동네형들에게 배운 기억을 되살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네형아의 문화관련 첫 지원사업은 충남문화재단의 무지개다리 사업이었습니다. 부여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볼까 고민했을 때 세대간,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역민들이 사람책 활동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다 마음으로 부여에서 사람책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책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 사람책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책은 사람마다 한 권의 책이 되어서 위로를 주고받는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거둬내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내가 더 넓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책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책을 통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사람책을 준비하면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문화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 사람책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만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책은 사람이 한 권의 책이어서 책 내용을 펼쳐보고 나서야 진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한정적인 시야가 아니라 다양성을 발견하게 되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2016년 첫 사람책 “일본인에서 한국 엄마 도전기”부터 2019년 “아빠, 그리고 아빠”까지 총 45명의 사람책을 만났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연이 있고 들려주고 싶은 사람도 다양했습니다.

동네형아 사람책을 몇몇 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책 이야기 1. 자랑할 것도 갖출 것도 없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평범한 시골살이를 했던 사람책. 학교에서 풍금으로 음악을 배우던 시절, 그나마도 악기 사용이 여윌지 않아 매시간 다른 교실에서 풍금을 직접 끌어 옮겨다 놓으며 음악수업을 선도하던 어린 남학생은 뜨거운 열정과 남다른 음악적 재능으로, 부모님의 극구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악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서울, 그리고 일본에서 국제적 음악 활동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지 7년째. 이제는 남들이 말하는 소위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고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슬로건이란 자랑할 것도 갖출 것도 없다’ 라는 신조로 자신의 꿈을 지향하며 살아온 사람책. 평범한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의 남다른 음악적인 재능과 끼는 그를 세계적인 무대로 이끌었다. 1980년대 초, ‘일본에서 음악활동을 하면 코끼리밥통 들고 돌아온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음악인들에게는 꿈의 무대였던 일본으로 우연한 기회를 얻어 떠났지만, 기대와는 달리 승승장구하지만은 않았던 고난과 고생의 일본생활 25년. 언어장벽의 어려움. 비자 문제로 인한 유학생생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음악을 해야 했던 그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꿈’이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인생의 전부였던 음악활동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책이 말하는 한국과 지역사회에서의 필요한 변화요소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알아보자.

이 사람책은 자신의 꿈을 찾고 싶은 사람이나 주변에서 반대하는 꿈을 가진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람책 이야기 2. 하마터면 성공할 뻔했네

손이 귀한 유복한 집안의 4대 독자로 태어나 금수저 장밋빛 인생을 꿈꿨지만 뒤이어 태어난

동생으로 인해 독자 타이틀을 잃는 생애 첫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후 굴곡 있는 삶의 변화와 함께 학생, 각종 알바, 군인, 직장인, 백수, 공연 연출, 무대 감독 등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현재는 복잡한 서울 생활을 벗어던지고 부여 시골 마을로 와서 매일 매일 노을을 볼 수 있는 것에 행복해하는 사람책 이야기입니다.

성공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고 만족하는 성공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성취할 수 있다. 아니 어쩌면 완벽히 성공한 삶이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치열한 세상에서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이가 ‘성공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며 정신 승리하고 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성공하지 않아서 행복하다는 주인공의 엉뚱한 이야기.

이 사람책은 무턱대고 응원이 필요한 사람이나 생뚱 맞은 분야에 도전하고 싶는데 겁나서 엄두도 못내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네형아는 사람책을 통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하나의 역사임을 알리고 기록하고 싶습니다. 엄마(아빠)의 입에서 딸(아들)을 거쳐 되살아난 부여(지역)의 다양한 장면들이 모이고, 사람책을 만나서 쌓이는 우리의 이야기도 ‘역사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점차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역사와 우리가 체험한 역사는 달랐지만, 두 가지 역사는 어느 외길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로 부여의 장면들을 지역민에게 알리고 기록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장면을 모여 사람책이 자신들을 둘러싼 세상의 편견, 그리고 그 편견을 벗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사람책이 될 수 있고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집 도어록의 비밀번호도 자주 까먹는 우리 어머니는 온 친척이 모이는 명절이 되면 놀랍도록 총명한 사람이 된다. 마치 무대 위에 선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고향 옛 동네의 지리를, 공부 잘하는 김 씨네 집 장녀로 축망받던 학창시절을 즐겁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볼 때 나는 엄마가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었던가, 명하니 보게 된다. - 내 어머니 이야기에서”

※ 참고자료 : 동네형아 사람책 목록 (2016~2019)

연도	순번	주요내용
2016	1	일본인에서 한국 엄마 도전기 사람책 읽기
	2	요리에 도전한 사람책 읽기
	3	진로 고민에 도움이 되는 사람책 읽기
	4	젊은 세대의 노력을 말하는 사람책 읽기
	5	싱글워킹맘의 고민에 대한 사람책 읽기
2017	6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책 읽기
	7	나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책 읽기

연도	순번	주요내용
2017	8	음악을 사랑하는 일본농부 사람책 읽기
	9	고민 상담으로 위로 받는 사람책 읽기
	10	엄마들에게 있는 속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책 읽기
	11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책 읽기
2018	12	부여정보고 졸업생 사람책 읽기
	13	부여 느린 아줌마
	14	역마살이 꿈인 30살
	15	앉아서 여행하는 독서가, 서서 독서하는 여행가
	16	돈 안되는 것을 좋아하는 비보이
	17	의자왕과 사랑한 김삼천
	18	평범한 청년 창업가
	19	핑크가 잘 어울리는 남자
	20	어깨깡패
	21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소중했던 일본 생활
	22	나의길 전통주 소물리에
2019	23	깜직새댁의 귀촌 스토리
	24	하마터면 성공할뻔 했네
	25	34년 나의 행적
	26	백제에서 놀자
	27	나를 소개합니다
	28	슬기로운 해외생활
	29	(재)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30	고무동력기
	31	사회생활이란
	32	사회 초년생의 마음
	33	사회 초년생의 직장 이야기
	34	지역사회에서 경영인의 역할
	35	청년 창업에 대하여
	36	뿌리 깊은 평생 면역
	37	학생에서 직장인이 된 후의 이야기
	38	도시재생스토리
	39	디자인과 생활의 연계성
	40	27년간 간호 경력에서 얻은 깨달음
	41	취준생이 사회를 살아가는 법
	42	아픈 우리 시어머니
	43	우리집에 찾아온 금둥이
	44	우리가족은 무뚝뚝해요.
	45	아빠, 그리고 아빠

대전 /

- 조성철(대전광역시의원)
- 김에카테리나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 러시아)

문화의 생명은 다양성에서 출발한다

조성철 (대전광역시의원)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사회구성체들이 생겨나고 기존의 오래된 공동체가 분화되면서 조금씩 다른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 역사에 나타난 문화의 발전 경로이다.

문화의 작은 차이는 생활의 반경을 넘고 세월이 쌓여가면서 점차 구성원들의 고유문화로 구축되고 그들만의 독특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그들의 생활과 신념, 사상과 철학을 담아 왔다. 작게는 마을 공동체 문화로부터 부족이나 국가, 민족이 하나로 관통되는 정서적 교감 통로가 마련되어 하나의 문화로 구축되어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다만 우리가 가늠하고 직접 느끼는 문화의 외형들은 씨족의 범위나 약간 더 큰 부족의 범위정도에서 형성된 문화들을 보고 느끼게 된다.

문화가 만들어지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특별한 원형을 만들어 왔다. 그런데 국가 간 교류를 통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녹아드는 경우도 있지만 세력 다툼으로 인한 강자논리를 앞세워 자본과 무기로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함부로 짓밟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근대 이전부터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피지배국에 이질적인 문화를 강요하고 이식시켜 전혀 새로운 문화를 강요 해왔다. 그렇게 사라진 문화의 원형만 들여다본다 해도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 수탈과 억압을 위해 자기들과 정서적 동질성을 강제로 구축해나갔던 것이 최근까지 있었던 일이었다.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문화가 갑자기 한 순간에 바꾸기를 강요받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그 땅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민초들은 오랜 세월 자신들의 조상이 지켜온 공동체 문화의 뿌리를 지켜내고자 안간힘을 써서 작은 근거라도 만들어 왔다. 겉으로 보이는 원형의 형식이 변했어도 그 안에 내재된 정신과 가치 등은 지키고 있는 것이 많다. 그렇게 지켜온 작은 공동체 문화가 존중받아야하고, 보존하고 발전시켜야하는 것은 그 작은 공동체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건강해지기 위해서이다. 더 나아가 그 문화의 원형은 우리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국가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작은 공동체 문화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오래도록 지키는 것은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토양이 된다. 작은 오래된 문화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도 있고 나눔과 배려, 연대의 작용도 있고, 수많은 문화콘텐츠도 있어 이를 토대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무궁무진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지나온 세월 속에서 선조들의 지혜가 온전히 담겨있어서이다.

문화는 작은 문화의 원형에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바탕으로 한 새롭게 변화해가는 사회 환경에 따라 조응해가면서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낸다.

현대에 와서 자본의 팽창이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 사람만 오가는 것이 아닌 그들의 문화도 이동하면서 새롭게 문화적인 부딪힘이 생겨나고 있다. 이주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기존 사회의 문화가 공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호 침투하여 보완되기도 하지만 충돌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처음에는 충돌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게 보이고 기존의 문화가 침탈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어가면서 융합되어 조금씩 진보된 형태의 문화가 만들어진다. 그것은 많은 시간을 통해 천천히 새로운 문화로 변화 발전하거나 짧은 시간에 흡수 또는 부가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양한 사회적 조건에 따라 융합, 흡수, 갈등, 소멸 등을 거쳐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역사에 나타난 문화현상들이다. 한 공간에 오래도록 살아오면서 독특한 자기 문화를 지켜와 배타성이 짙은 문화적 경계를 만들어 내지만 실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가 접목되고 이식되는 과정을 거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접목되는 문화들도 당대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경로로 받아들이고 융화하면서 조금씩 진보해 온 것이다.

수많은 과정을 지내오면서 변화 발전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접하는 문화의 원형들인 것처럼 지금도 새롭게 접목되는 문화들도 배타적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 관점을 가지고 맞이할 일이다. 또한 그것들은 그것대로 존중하여 공존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긴 안목에서 본다면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될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지점을 보게 된다. 오랜 세월 같이한 전통문화 보존과 새롭게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이질적인 문화 보호라는 과제를 안게 되는데 그 기준과 간극을 메우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사회도 이젠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되면서 여러 형태의 문화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도래해 있다. 그러면서 사회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다름의 인정과 공존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먼저 문화의 다양성이 우리사회에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문화의 올바른 계승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형태의 문화가 우리의 생활 속에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수의 문화, 작은 마을공동체 문화 등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는 그런 문화들이 정책의 중요한 틀거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법률이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지역에서는 아직도 지역 현실에 걸맞은 조례 등 제도화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여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통적으로 전승되었든, 잊힌 것들을 다시 이으려는 노력이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로 새로 만들든지 어떤 것이든 주체적으로 공생하겠다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차별로 인한 갈등을 이겨내야 한다. 그것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는 공생의 가치를 넓게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낯설어서 이질적으로 느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문화가 훨씬 풍요로워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자는 것이다. 이 문제에 적극 나서서 제도화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다양한 문화가 우리지역에 올바르게 정착하는 순간이 발전된 미래의 출발선일 것이다.

우리多문화인 알리미 프로젝트 속에서 바라본 문화다양성

김에카테리나(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 러시아)

2019년 기준 대전시의 다문화가족은 6,323가구로 2만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정착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정착주기 장기화는 다양한 가족 유형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평균 결혼생활 지속기간은 7~8년, 결혼이민자의 평균 결혼연령은 38.9세라고 합니다. 부부간 연령차가 10세 이상인 비율이 비다문화부부가 3.6%인 것에 비해 다문화가족은 29.5%로 여전히 연령 차이가 높은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높은 연령 차이는 배우자 사별로 발생하는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부부, 시부모를 비롯한 가족의 연령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세대 간 격차가 가족갈등 및 해체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실제로 결혼이민자들은 타지에 사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들도 결혼을 하고 고향을 떠나 살다 보면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명절이면 가족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한국 여성이 친정을 방문하는 것은 결혼이민자들보다 훨씬 수월한 반면 결혼이민자들은 멀리 타국에서 오다보니 고향에 방문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저 또한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남편과의 갈등이 고조되어 명절 이후 부부싸움을 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매우 뿌리 깊은데, 이는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 마음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상대방에게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배려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타지에 와서 다른 문화에 적응하고, 다른 언어를 배우고,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사귀어야 하고, 자녀들까지 양육하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결혼 이민자의 입장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좋은 기회로 2019 무지개다리사업의 '우리多문화인 알리미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재)대전문화재단이 주최,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력,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 추진되었으며,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 작품을 직접

제작하여 나눔활동을 통해 대전 시민에게 문화다양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먼저 참여자인 다문화가족이 '대전에서 지내는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스토리를 구상하고 예술가와 협업을 통해 총 23개의 시와 그림 작품을 제작 했습니다.

저는 '우리多문화人 알리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설렘이었습니다. 예술가 선생님들과 만나고 자기소개 및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결혼이민자들과 친해졌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시를 쓰는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로 나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선생님이 쓰시는 시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좋은 문화 매개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를 쓰려고 하니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를 쓰기 시작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과 함께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가족은 가족인가 보다'라는 시 한편을 완성하였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러시아 공동체 모임 '러시아어의 날' 및 '제1회 러시아 문학의 날' (시낭송)이 열렸는데 이 모임에는 러시아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들도 많이 참석했으며, 러시아 문화와 화가 및 시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러시아 시인들의 시를 러시아어로 읽었습니다. 러시아 문화를 대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그림을 담당하는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각 나라의 문화를 알아보고 고향에 있는 가족과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생각한 후 같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다들 모국의 문화와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각 나라의 특성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민자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통해 모국에서는 '명절'을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풍습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국화가 무궁화 인 것처럼 각자 모국의 국화나 상징꽃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의 연꽃, 중국의 대나무, 몽골의 해바라기를 그리며, 각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 또한 몽골과 같이 해바라기가 국화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해바라기를 많이 심고, 미술관에 가면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봄에 유채꽃이 많이 피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6~7월에 넓은 들판에 해바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도 국화인 해바라기를 그리려다 결과적으로는 단풍나무를 그렸습니다. 다양한 문화 또는 다문화를 생각하니 울긋불긋 다양한 조화가 어우러지는 단풍나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한국사회에서 각 나라의 문화를 공유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자조모임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조화로운 한국사회 정착을 서로 이끌어주면 훨씬 더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으로서 가끔은 나의 문화와 남편의 문화가 부딪힐때도 있지만 결혼생활이 10년 넘어가면서 각 고유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노력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국의 가정들보다 저희 가정이 더 복합적인 문화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저의 자녀에게 더 자랑스럽게 저의 모국의 문화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다문화사회가 시작된지 벌써 10년이 지나갑니다. 신생아였던 어린아이들이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들 또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용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지만 아직도 사회안에 있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다르다'에 집중하기 보다 '다양함'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 서로의 이해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가 한국 사회에 잘 녹여져서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색채를 뽐내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가족인가 보다

김에카테리나



우리 가족 이상하다
울다가도 웃다가도
서로 곁에 있어준다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 준다
가족은 가족이긴 한가 보다
서로 이해를 못해 싸울 때도 있지만
가족은 가족이긴 한가 보다
이로써 가족은 나 자신의
동반자가 되었다
성격도 이해심 때문에 싸우면
우리 가족 속상하다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긴 한가 보다

그림

시

세
종
/

- 노종용 (세종특별자치시의원)
- 유정규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 김도영 (예술인, 한국화가)

문화다양성 도시, 세종시를 꿈꾸며

노종용 의원(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 벌써 8년을 맞이합니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목표로 만들어진 세종시는 그 출발부터 ‘새로운 도전’으로 성장하는 다양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글로벌(Glocal)’ 시대가 도래한 만큼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가 세계 속의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세종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과 한류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유학생 유치 활성화에 관한 시정 질문을 하는 등 관련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세종시가 외국의 우수한 인력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국제화 도시를 만들어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생, 상생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점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문화다양성이 필수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래 전 저는 호주에서 잠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간 저와 현지인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편견과 오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생활하며 대화했던 많은 시간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저는 문화적 다양성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해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그것이 바로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의 제 의정활동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세종시 국제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저의 관심과 의정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세종시문화재단에서 추진 중인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연구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모임을 통해 사회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고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2019.12.16.).

이 문화다양성 조례는 전국에서 17번째로 제정되었습니다. 세종시에서 이 조례의 제정은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발의, 영향평가, 의결 등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정을 위한 사전 시민 ‘연구모임’을 진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문화다양성 전문가, 시민, 시청,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5개월여에 걸쳐 세계와 국내 관련 사례를 연구하며 세종시에 적합한 조례를 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은 이렇게 시민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를 오해한 지역민들에게 항의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하시는 시민들께 저희가 새로운 법을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대한민국 법률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내용을 문화 분야로 확장하여 소수자, 약자, 성별, 종교, 인종을 넘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차별 없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문화가 문화다양성 조례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표현되고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권’과 ‘연대’가 중요한 극복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연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세 또한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포용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데 더욱 큰 의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부터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까지 전부 함께 해주시는 시민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생각과 표현의 차이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함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함께 이루는 ‘문화다양성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모두가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내주시는 낮은 곳에서의 다양한 소리를 들으며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연구를 위해 힘써주신 세종시민과 전문가, 시청 및 교육청 관계자, 세종시문화재단 담당자분들께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종시민이 만드는 문화다양성 조례

유정규(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1. ‘多화만사성 공감모임’을 시작하며

세종시에는 여러 지역에서 직장, 거주, 결혼 등 다양한 사연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세종시가 생긴 2012년에는 인구가 11만 명이었는데 2020년 4월 기준으로 34만 명이 넘었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세종시의 외형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고 어울리게 되는 일이 다반사다. ‘새로운 것’,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문화다양성이 세종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는 이유다.

세종시문화재단은 2017년부터 ‘多화만사성’이라는 이름으로 무지개다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내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고자 했다. 공공예술프로젝트, 북콘서트, 라운드테이블, 사진공모전, 문화다양성주간 체험행사 등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들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시도는 시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려는 차원이었다.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지역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문화다양성 활동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2016년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광주, 목포, 경기도, 부산, 서울, 제주도, 충청북도, 서울시 구로구, 익산시, 서울시 강북구,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세종시에서 조례제정을 준비한 지난해에도 몇몇 지역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전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앞선 사례들을 보면서 조례제정의 의미에 공감하면서도 조례제정을 계기로 문화다양성이 세종시 정책에서 중요하게 자리잡아 실질적인 활동을 펼치는 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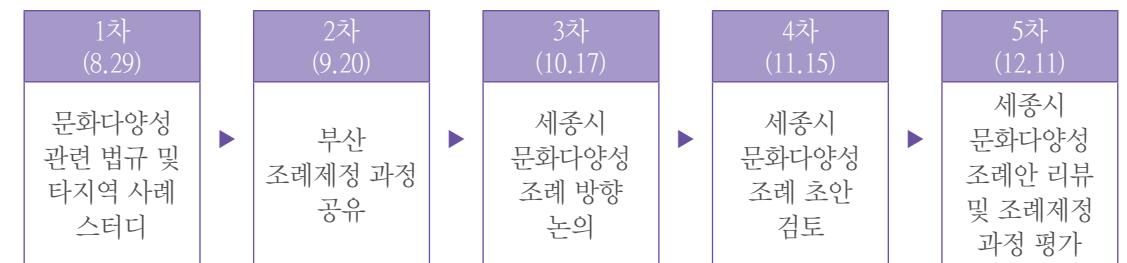
시민들과 함께 조례를 만들면 그런 바람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세종시문화재단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다양성 주체들, 즉 시민이 참여하는 자발적 연구모임을 통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자 했다. 연구모임 이름도 ‘多화만사성 공감모임’으로 정했다. 방법적으로는 세미나, 시민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세종시 특성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얼마나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질까 걱정했는데 반갑게도 13명의 시민이 조례제정 과정에 참여

했다. 연구모임이라는 낯선 만남으로 우리는 서로 서먹했다. 그렇지만 세종시에 살고 있고, 막연하지만 문화다양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고, 문화다양성 조례가 제정되면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낄 거라는 기대감도 동기부여가 되었다. 예술가도 있었고, 지역아동센터 돌봄 강사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다. 대부분 조례가 무엇이고, 조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도 몰랐지만 조례를 함께 만들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의기투합했다. 평소 문화다양성에 관심이 많은 시의회 의원도 함께했고, 아시아인권문화연대에서 활동한 이완 대표가 조례제정의 멘토로 참여해 더욱 힘을 얻었다.

2. 다섯 번의 공감모임

조례제정 시민연구모임은 2019년 8월에 시작되었다. 매월 한 차례씩 모임을 진행해 11월까지 시민의 손으로 만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였다. 만남은 월 단위로 진행했지만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와 준비는 5개월 동안 지속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비록 다섯 번의 만남이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만났다.



첫 번째 모임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다. 문화다양성에 대해 서로의 생각도 나눠 보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도 같이 살펴보았다.

이완 대표는 발제를 통해 국내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사례에 대해 소개하면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조례제정이 왜 필요한지 상기시켰다.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노력 또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정당성을 담보해야 하며, 사회 전체가 혐오와 차별을 바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성의 가치가 훼손되고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어려우며, 인식개선과 제도적 보완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 노력이 더해진다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통해 사회의 모든 다양한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에서 제정된 문화다양성 조례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 한 사람씩 발제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세종시 조례에 반영하면 좋을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조례 내용 구성이 비슷했는데 차이가 나는 조항들은 꼼꼼히 체크해서 공유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부산의 조례제정 사례를 살펴보았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문화다양성 사업을 진행해온 부산문화재단 고운정 연구원을 통해 부산시의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과정과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기관에서 문화다양성 현장과 만나며 여러 가지 사업을 직접 해온 입장에서 문화다양성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이 아닌 예산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다양성 조례에 답을 문구 하나하나보다는 조례제정 자체 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므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례에 쓰인 용어 자체가 생소한 우리들에게는 반가운 이야기였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감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된다는 말에 용기도 얻었다.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만으로도 아직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일이라며 오히려 대단하다는 말까지 남겼다.



▲ 13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시민연구모임은 2019년 8월 첫모임을 시작으로 5개월간 진행되었다.

세 번째 모임에서는 세종시 문화다양성 조례안에 대한 방향 논의를 했다. 이른 감이 있었지만 다른 지역 조례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담긴 내용들은 차용하되, 세종시만의 특징도 추가하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감한 용어는 표현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젊고 성장하는 세종시 특성상 조례제정 또한 진취적일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 예를 들면, 조례에 문화다양성시민위원회를 담아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의 시민이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시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다.

세종시는 아동과 청소년 비중이 높고 젊은 도시인만큼 문화다양성 교육을 특화하고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종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문화다양성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네 번째 모임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느새 11월이 되었다.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완 대표가 초안을 작성했고 우리는 문구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의견을 나눴다.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의견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의견도 많았다. 예를 들면, “국적, 민족, 인종 등 문화적 차이”의

요소를 나열할 때 누군가의 ‘가나다 순’으로 기술하기로 하지는 의견에는 모두가 감탄했다. 다른 지역의 조례에서는 순서를 의식하지 않고 기술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소하지만 큰 소득이었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어떤 조항들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분분했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서로가 동의한 긴 토론을 통해 조례안을 다듬어 시의회에 보냈다. 문화다양성 조례제정을 계기로 서로를 가깝게 느낀 값진 시간이었다.

다섯 번째 모임이 있기까지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냈다. 시 의회에서 2019년 10월 31일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입법예고를 했는데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다행히도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은 많지 않았다. 조례안이 11월 1일에 발의되었고, 조례안 예고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11월 1~6일)가 이루어졌으며, 상임위원회(11월 19일)와 본회의(11월 22일)에서 의결되었다. 그렇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19년 12월 16일 제정되었다. 우리는 한 사람씩 소리내어 한 조항을 읽으며 조례제정을 자축했다.

물론 아쉬움도 남았다. 문화다양성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다양성시민위원회는 반영되지 못했다. 문화다양성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실질적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센터 설치까지도 기대했지만 조례에 담지 못했다. 아쉬움은 다음을 위해 남겨두기로 했다.

이날은 대전문화재단에서 무지개다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현 팀장을 초대해 대전시의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사례도 살펴보았다. 조례제정 이후의 활동에 대해 고민하면서 인근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시민위원들의 참신한 의견도 많았다. 문화다양성 버스킹, 문화다양성 요리교실, 임산부 대상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공모전 진행 등 충청권 지역이 공동으로 진행하면 더 효과가 높을 프로그램들에 대한 제안과 의견이 오갔다.

3. 多화만사성 공감모임, 다시 시작

조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조례제정 연구모임을 진행했고, 결실도 맺었지만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조례제정으로 앞으로의 활동에 첫 단추를 채운 셈이다. 세종시보다 앞서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문화다양성 관련 예산도 확보되고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지는 곳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조례제정이 상징적 차원을 넘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실질적 활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더 큰 과제이다.

조례제정 이후 多화만사성 공감모임은 비로소 시작인 듯하다. 무지개다리사업 4년차를 맞는 세종시문화재단은 2020년부터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수립과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실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더 집중하려 한다.

그 중심에 시민들 간의 자발적 교류협력 네트워크인 시민연구모임이 있다. 세종시와 관계기관의 정책 자료 등 시 현안과 밀접되어 있는 자료를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분석과 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재단 및 관계기관 추진사업에 문화다양성 가치 관점을 반영하도록 역할을 할 예정이다. 문화다양성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도 함께하게 된다. 추후에는 문화다양성 위원회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다양성은 공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시민연구모임에 함께해준 13분의 시민위원께 감사드린다.

안녕하세요? 내 안의 문화다양성

김도영(예술인, 한국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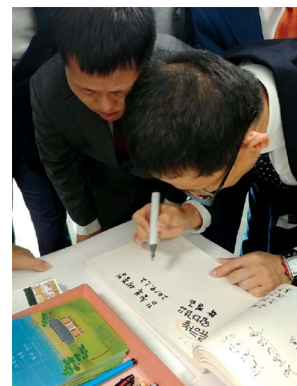
처음 ‘무지개다리 사업’과 ‘문화 다양성’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그 의미를 어렵듯이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이 분야가 다소 낯설었습니다. 더군다나 조례제정 모임에 참가할 정도로 제게 어떠한 실력과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에서는 제가 해 왔던 여러 일 중에서 문화다양성과 연관된 사례가 많음을 상기시켜주었고, 특별하지 않아도 저는 문화다양성의 일부분에 속해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금은 두렵고 긴장된 마음으로 잠시 화가로서의 붓을 놓고 작업실을 나와 시민위원으로서 문화다양성 조례 연구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10여 년 전을 돌이켜 회상해 보면, 저는 거대한 나라, 미국에서 언어마저도 어눌한 소수자, 유학생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무료 야간 영어 수업시간에는 멕시코 노동자들, 중국 상인들과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이 가득한 수업 현장에서 참으로 ‘많은 차이 있음’을 체험했었습니다. 같은 영어이지만 다른 발음, 같은 행동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 그리고 음식을 대하는 특별한 의식과도 같은 차이 있음이 너무나 어색하고 조심스러워서 각각의 다양한 문화에 관한 공부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미국은 미국인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제외하고 다른 학생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활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사람’에 대해 낯섬을 배제한 사회에서 저는 어설픈 이방인 모습이었지만 그림으로 대화하고 다시 그림을 선물로 주는 등의 흥미를 이어가면서 저의 사회적 영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존중 하면서 서로 공존해온 사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문화다양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예술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풀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생활 2년이 되어가는 즈음 알게 된 한 미국인은 저의 영어 튜터가 되어주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찾아와 일대일 선생님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의 나와 그녀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그녀의 결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점점 친근해지면서 그녀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그녀의 막내 아들 죠셉을 처음 만났습니다.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9살 남자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수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운동회에서는 그가 몇 걸음 더 달렸다면 환한 웃음으로 자랑했습니다. 점심이 되자 그녀는 죠셉의 가슴에 있는 호스에 액상 식사를 투입하였고, 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종종 우리 가족은 그녀의 가족과 함께 사과를 수확하는 농장도 같이 가고, 브런치 시간에 초대하여 우리 아이들과 그녀의 아이들은 형제와 같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으로 처음 접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마음의 불편함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에서 저는 다수자이면서 한편으로는 외국에 잠시 지내러 온 소수자로서 중첩적 존재였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제 생각은 많이 바뀌었고, 또 그만큼 시야가 넓어지고 성장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저는 일상의 한 부분을 사회에 봉사하기로 하고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영어교실’의 강사를 자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영어학원이 있고 노인복지관의 영어 수업 등이 있었지만, 어르신들이 알파벳부터 배울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니다. 미국 한국학교에서 한글을 그림으로 가르쳤던 경험과 저의 미술적 재능, 영어 실력은 그분들에게 베풀기 적합하였습니다. 처음엔 헛갈리는 알파벳 글자 모양 설명에 그림을 첨가하여 설명하다 점점 그림 카드를 제작하여 매 수업에 활용하였습니다. 모든 단어를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니 굳이 익히지 않고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시고, 알파벳은 기억 못 해도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 만족해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배움의 즐거움이 꼭 이해하고 암기해야 하는 학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학생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자주 발견하면서, 어른스러워야 한다는 어르신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천진함과 순박한 열정을 졸업할 때까지 딸 같은 선생님으로서 계속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세종시로 이주 후 저는 이런저런 봉사를 간헐적으로 하다가 가족봉사단에 가입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섯 가족으로 구성된 우리 봉사단은 각기 다른 장애가 있는 고등학생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시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한 달에 한 번 야외 활동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주로 공원이나 호수 주변의 나들이를 자주 다녔는데, 한 번은 제 개인전에 그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이분들은 평소와 달리 격식 있는 차림으로 오셔서 더 진지한 관람 모습과 체험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후로 저는 이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다음 해 전시 때에도 그들을 따로 초대하여 제 그림을 소개하고 체험활동도 준비하여 마음껏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박물관과 갤러리, 영화관, 레스토랑, 카누놀이 등 다양한 문화 체험으로 확장하여 여러 기관과 장소를 방문하곤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봉사자들의 과한 배려와 보호가 오히려 그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속할 기회를 좁히게 하고 수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더 이들이 주체적으로 행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 사회활동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참여하게 된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시민위원 연구모임은 그러한 고민을 풀어주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모인 시민위원들과 함께한 회의시간이 제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과 정책적인 이야기로 다소 낯설었지만 매시간 성실하게 참여했습니다. 모임 시간 이외에도 문화다양성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제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회 이슈를 알게 되었고,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협약’을 읽어보며 예술가로서의 참여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의 모임을 통하여 시 관계자와 시민위원과는 세종시의 현안을 나누었고,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에서 오신 팀장들과는 사업 진행 과정의 생생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수고로움으로 문화다양성이 표현되고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모임은 조금은 특별하게 문화다양성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 전시장에 모여 진행했습니다. 사진 대부분은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특별함을 담담하게 또는 잔잔한 일상을 따뜻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작품관람 후 시민위원과 문화재단은 내년도 무지개다리사업에 관하여 제안하고 논의하면서 조례제정 통과를 기대했습니다. 마지막 모임에 앞서 세종시 문화다양성 조례가 11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간 함께 해 온 시간은 더욱 중요한 의미로 결말지어졌으며, 앞으로 조례와 함께 펼쳐질 사업들이 많은 시민에게 문화다양성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는 아름다운 사업으로 이어지길 서로 소망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과 함께 또 하나의 모임이었던 “2019년 무지개다리사업 다화만사성 온라인 커뮤니티 밴드”에서는 일정 공지와 지난 회의 안건, 무지개다리사업 소식, 회의 자료 외에도 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을 심도 있게 알고자 하는 시민위원들을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업데이트하는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정보 중 “제2회 충청권 문화다양성 정책포럼”을 읽다가 알게 된 인터넷 사이트 《올리볼리》는 저에겐 보물상자를 찾은 것처럼 흥미로웠습니다. 이 사이트는 문화 다양성 교육을 그림동화, 교육자료 그리고 감수성 테스트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과 몽골, 이란, 베트남, 인도네시아, 티베트, 베트남 등의 문화다양성을 다룬 이야기를 개성 있는 국내, 해외 작가들의 애니메이션을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해당 자국어 버전으로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중 노년층의 애환을 다룬 ‘손이 들려준 이야기’와 참다운 자기 모습을 사랑하라는 ‘민들레는 민들레’는 한국 동화로 한국 정서 가득한 완성도 높은 그림과 잔잔한 이야기로 감동을 주었으며, 이란의 양성 평등 이야기를 다룬 ‘남자는 사자, 여자는 토끼’는 종이 판화 기법으로 단순하고 귀여운 캐릭터로 내용을 잘 표현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 감수성 테스트를 해보니 93점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하여 많이 체험하고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인 7%를 더 채워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듯했습니다.

문화다양성의 조례제정 연구모임을 마무리하고 보니 어느새 또 다른 저의 성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문화다양성의 교육을 제대로 받아 본 적도 없었고 문화다양성을 단순히 힘없는 소수자나 다문화인을 위한 정책으로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 일부분이자 소수자를 위한 사회참여 기회라고만 생각하면서 문화다양성 정책은 내가 포함되지 않는

제삼자인 방관자적인 시선으로만 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그 문화 다양성 안에 살고 있었고, 현재에도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연구 모임도 결국 전문가, 관련기관과 함께 다양한 시민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하는 과정이자 문화다양성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 다. 이런 모임처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다양성 교육 외에도 일반 시민, 성인층 대상으로 다양한 기회를 확산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 조례에서 보았던 문화다양성을 정의하는 단어들의 의미는 인간과 모든 문화가 지닌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편견 없이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작은 사회, 가정 또는 모임 안에서 보이는 다양한 층의 소소한 갈등과 편견도 문화다양성의 시각으로 본다면, 인간(人間) 즉 사람 사이가 참 아름답게 정리됩니다.

예술가가 독특한 생각과 표현으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듯이,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며 공존하는 모습으로 어우러진 우리 사회는 알록달록 예쁠 것 같습니다.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은 제7조를 통해 “창조는 문화적 전통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만, 다른 문화와 접촉함으로써 꽃핀다.”고 문화다양성의 의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예술가로서 예술을 매개로 지역 내 다양한 소수문화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주고 예술가간 문화 교류 및 소통을 통하여 문화다양성을 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어딘가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와 차별과 혐오에 대응할 주요한 도구로써 문화다양성 원리를 적용한 예술 표현방식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예술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모든 시민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열린 마음과 이를 존중하는 포용력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우리 주변에서도 문화다양성이 상호 긴장과 마찰이 아닌 아름다운 꽃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번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연구모임의 시간은 제 삶에서의 문화다양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앞으로의 저의 미래에 문화다양성을 꽃 피울 수 있는 작은 씨앗과도 같은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부로만 집중해 왔던 나의 예술세계도 문화 다양성에 대한 배움과 이해를 통해 점점 넓어지고 유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사회와 사람들의 활동은 ‘잠시 멈춤’이 되었습니다. 아니, ‘오랜 멈춤’이 될 수도 있는 현 상황에서 저는 ‘(물리적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되 마음만은 가깝게 하라’는 슬로건을 붙잡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먼지가, 그리고 이제는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가 국제적으로 넘나들면서 온 지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타국의 문제로만 생각했던 그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를 문제의 주체로 만들어 버렸고, (아직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반대로 우리나라가 해결의 모범사례로 두드러지면서 많은 나라의 주목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한편에서는 바이러스가 옮겨지고 사태가 심각해질 때마다 나라 간, 그리고 인종 간의 감정 변화와 편견, 폭력이 번지면서 혼돈을 겪는 사례도 빈번해 졌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과 같은 시기가 오히려 문화다양성을 인정하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많은 문화 활동과 예술마저도 멈춰 버린 지금, 우리 사회의 문화적 역량은 집안으로 미디어로 축소되어 겨우 연명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문화가 인터넷 공간에 더욱 집중되고 형성되어가는

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비난과 혐오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빠르게 회복하기를 꿈꾸며, 아직도 많이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게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함께 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충
북
/

- 안건수 (청주 이주민노동인권센터장)
-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운영위원)

충북 이주민의 인권

안건수(청주 이주민노동인권센터장)

들어가는 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다문화 가구원 수는 100만 명을 넘었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250만 명을 넘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저변을 넓힐 뿐 아니라, 선주민들이 기피하는 4D업종의(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일을 도맡아 경제성장에도 이바지 한다. 이들이 한국 사회의 규범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이 이주민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편법·탈법과 이를 조장하는 허술한 법적 규정으로 인해 적지 않은 이주민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아래에 소개하는 몇몇 사례는 1990년대가 아니라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과거에 벌어진 일들이다.

라타나 씨의 사례

태국 출신의 여성 노동자 라타나 씨는 작년 8월부터 충북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주야간 맞고대로 하루 12시간 일을 했다. 주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야간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일을 하는 일정이었다. 토요일에도 일을 하고 일요일은 격주로 쉬었다. 점심시간은 30분, 저녁은 퇴근 후 식사를 하였다. 일은 플라스틱을 기계에 넣어 파쇄하는 단순노동이었다. 힘은 들었지만 라타나 씨는 어렵게 일자리를 얻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일했다.

그러나 그녀의 일은 불과 두 달을 일하고 다음날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작년 10월 13일 산재로 인해 그녀는 다리 하나를 잃었다. 그녀는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쉬지 않고 매일 야간에 일을 했다. 13일에는 기계에 들어간 줄이 한쪽 다리에 걸려서 미처 대응할 새도 없이 다리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고 만 것이다. 그녀의 진단서에 적혀 있는 질병명은 우 하지 절단, 우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우슬부 정·비골간 탈구 등이다. 다행히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부상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한지 2달이 되어가는 작년 12월에 사측에서는 병원으로 라타나 씨를 찾아와 퇴원과 귀국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미등록 체류 신분임에도 치료는 다해주겠다던 당초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산재보상금과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2달 동안 치료를 받아 차도가

있으니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라타나 씨에게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병원에 있던 선주민 환자들이 회사의 매정한 태도에 대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의 배우자가 노동운동 경험이 있었는데, 마침 나와도 안면이 있던터라 이러한 인연으로 나에게 연락이 온 것이다.

내가 병원에 가보니 라타나 씨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다. 수수료로 30%를 떼는 이른바 ‘브로커 변호사’였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에서는 산재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브로커 변호사’들이 적지 않게 활동한다. 특히 라타나 씨와 같은 이주민의 경우는 한국 사정에 서투르기 때문에 브로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 보상도 못받는 것 보다는 70%라도 받아야겠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라타나 씨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기존의 변호사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산재를 신청했다. 그것이 작년 12월 20일의 일이다. 그리고 라타나 씨의 근로 시간과 임금을 확인하여 올해 1월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많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그러하듯이 라타나 씨 또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연장근로·연차·심야 등 각종 수당이 미지급된 상태였다. 나는 라타나 씨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을 산정하여 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 입회 하에 사측과 합의를 통해 라타나 씨가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를 가능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행히 올해 4월 라타나 씨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장해급여도 추후에 치료를 마치면 지급될 것이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된 라타나 씨에게 어떤 위로도 부족하겠으나 충분한 치료와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최악의 상황을 막은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주민 농업 노동자의 사례

정부는 농번기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을 제도화했다. 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자체가 자매결연(MOU)을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4촌 이내 및 그 배우자) 중 선정한 외국인에게 3개월간 일할 자격을 부여한다. 2019년 상반기 현재 그 규모는 41개 지자체에 2,597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충북 지역에 배정된 인원은 618명이었다. 그 밖에 고용허가제로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민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6,400명 이상이다. 이주민 노동자 없이는 농축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정도이다.

그러나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민 노동자는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과 연차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축산업 예외 조항에 기인한다. 이주민 노동자 활용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인 노동부 고시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축산업 예외 조항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작년 한 이주민 노동자의 경우 월 300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임금으로 불과 171만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합의에 따라 2시간 연장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주 5.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월 224시간이

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가 허다하다. 노동청에서 시정 명령을 내려도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버티는 업주가 대부분이다. '나라에다 세금을 내지 외국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농축산업에서 이주민 노동자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벌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선주민 노동자의 처우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권고사항을 통해 “이주노동자가 근로에 상응하는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농번기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수당, 숙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등 농축산업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청에 신고한 것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을 일하도록 하고 임금은 신고한 것만큼 지급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영세 농장에서의 임금 체불도 고질적이다. 작년 9월 충북 진천의 한 파프리카 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1년 가까이 임금이 체불되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했다. 다행히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처음부터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아 소송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을 것이다.

나가는 글

이주노동자는 이미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이 혐오와 차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오해와 달리 한국인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2018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6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에 의하면, 약 80%의 기업은 '내국인을 구할 수 없어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다고 응답했다.

세계화 시대에 이주노동자와 공존하는 것은 불가피한 숙제이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이 적지 않다. 농촌 이주노동자의 사례는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은 지난 2015년 법률 개악 이후 출국 이전에 받지 못하고 출국 후 14일 안에 받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한국에 있을 때도 정보가 부족한데, 귀국하고 나서는 퇴직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작년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한 적이 있는 이주노동자 92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그것을 받는 절차를 잘 모르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미수령된 퇴직금은 3년 후 국고로 귀속 되는데, 그 액수가 2019년 8월 현재 132억원(출국만기보험 30억원, 귀국비용보험 102억원)에 달한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과제는 이주노동자들이 단순히 '산업역군'으로서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상호적인 우애와 연대 의식의 확산이다. 앞서 라티나 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선주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청주시에서는 작년 몇 개 병원이 이주민노동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주민 협력병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병원의 존재로 인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큰 비용을 지출해야 했던 이주노동자들이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번에 화재 현장에서 10여명을 구한 카자흐스탄 이주노동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연대는 상호적인 것이다. 선주민들의 선의는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혐오의 시대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이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운영위원)

1. 혐오의 시대

혐오의 시대다. 한국사회 혐오의 확산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많은 이들이 세월호 유가족이 단식 농성을 하던 광화문 광장 앞에서 극우 온라인 사이트 회원들이 치킨과 피자를 시켜먹으며 조롱하던, 이른바 ‘폭식 투쟁’에 충격을 받기도 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진단하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혐오와 차별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은 특정 대상을 가리지 않고 여성, 노인, 아동 및 청소년,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특정지역, 특정국가, 종교 등을 막론하고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어 왔지만 현재에 이르러 여러 긍정평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식민지와 전쟁 등 매우 불행한 근현대사를 겪으며, 피해해졌지만, 이후 단기간의 압축적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또한 한국시민은 평화로운 정권교체 그리고 촛불항쟁으로 불의를 자체적으로 견어낸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역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대응도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의료역량과 시민의식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정말 모든 구성원이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럼 한국사회의 갈등 또는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일정한 견해 차이와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최상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혐오와 차별의 수준은 한국사회 구성원의 내부적 판단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2018년 BBC글로벌 서베이의 다양성 포용정도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27개 조사대상국 중 26위에 불과했다. 이 조사에서 한국 사람들은 배경, 문화, 견해가 다른 이들에 얼마나 관용적인가에 대한 응답에 단 20%만인 매우 관용적이라고 응답했다. UN경제·사회·문화적권리 위원회는 2017년 대한민국 정부의 제 4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 부족에 매우 우려하며 문화다양성 확산에 힘쓰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2. 일상적인 혐오와 차별의 확산

한국사회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타인에게 혐오표현을 일삼고 차별을 가한다는 사람을 찾기 매우 어렵다. 오히려 차별을 받았다는 경험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혐오하는 사람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혐오나 차별을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럼 매우 특별한 어떤 집단에 의해서만 혐오와 차별이 자행되는 것일까? 온라인상에서는 새로운 혐오표현들이 양산되고 댓글에 도배되듯 자행된다. 여성혐오는 넘쳐나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줄어들 줄 모른다. 세대 간에 갈등은 폭발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며, 장애인 시설의 설립·이전은 당연한 듯 주민반대에 부딪힌다. 그럼 이들은 모두 누구인가?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평점 테러 사건에서 보듯이, 혐오와 차별의 가해자는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고 나 자신일 수도 있다.

또한, 혐오표현과 차별행위는 때와 장소 또한 가리지 않는다. 학교 안에서의 혐오표현은 어떻게? 2019년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중 7명이 혐오표현을 접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혐오표현을 접했던 장소로는 온라인 82%, 학교 57%, 학원 22% 그리고 집 13%로 조사되었다. 또한 누구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는가? 에 대한 질문에는 친구 54%, 학교선생님 17%, 학원선생님 9%, 부모님과 가족 10%로 응답하였다. 위 조사에서 보듯이, 학교안과 밖 그리고 가정에서까지 혐오 표현에서 자유로운 곳이 없었고, 혐오표현을 한 당사자도 친구, 선생님, 부모와 가족 등으로 나타나서 낮모르는 먼 타인이 아니라, 우리 삶 속 가까운 이들이 혐오와 차별의 가해자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더욱이, 이런 혐오와 차별은 늘 가시적인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10년간 알아오던 이주배경을 가진 청년을 만나 관련된 내용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이 청년은 태국에서 태어난 이후 가족의 상황변화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에 처음 왔다.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한국에서 졸업했고 이제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다. 늘 진취적이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친구였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았는지,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했는지 질문했다. 이에, “학교를 다니던 내내, 누군가 저를 욕하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았고 단톡방에도 늘 함께 있었어요. 차별을 당하지 않고 지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친구 생일잔치에 초대 받은 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지 5년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처음이었어요.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혐오와 차별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하면서 구별하기 쉬운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만이 느낄 수 있는 형태의, 보이지 않는 배제와 따돌림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차별과 혐오의 한 단면이다.

혐오와 차별은 광범위하게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한국사회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맞닿아 있는 것이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황과 위치 환경에 따라 끝없이 서로 교차한다. 가해자가 차별과 혐오의 담론을 형성하는 동시에 그 또한 차별과 혐오의 사회의 또 다른 양상에서의 피해자가 된다. 따라서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여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일은 담당자가 따로 있지 않은, 우리 모든 사회구성원의 책무이다.

3. 왜 문화다양성이 혐오와 차별을 넘어 인권을 지키는데도 필요할까

현실에서의 차별은 매우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 가지 차별양상들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의 경우, 특정한 인종을 우대하고 다른 인종을 천대하는 일종의 생물학적인 형태의 인종차별 양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내부 계급간의 차별, 즉, 외모, 성별, 성적지향, 지역, 학력,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에 따른 차별과 함께 교차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다른 혐오와 차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런 복합적인 양상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문화다양성의 관점과 실천이 꼭 필요하다.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 선언과 협약에서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키고 장려해야 하는 원칙으로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에서 다양성과 인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4조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인권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무이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것이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천은 특히, 소수 민족과 원주민들의 권리를 포함한다.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문화 다양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문화 다양성을 위한 환경으로서의 문화권

문화권은 인권을 구성하는 데 뗄 수 없으며, 보편적이고 개인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요소이다. 창의적 다양성이 번성하려면 세계인권선언 제 27조와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문화권을 완전하게 실천해야 한다. 모든 이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특히, 모국어로 자기 작품을 창조하고 배포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문화 다양성을 전적으로 존중하거늘 질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 자신이 선택한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적 실천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정받는 것은 기본적 인권의 영역이다. 만약 차이를 다양성의 관점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의 이유로 활용하여 차별의 근거로 이용해선 안 된다.

한국에서도 문화다양성 증진법의 제1조에서는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이 법안의 주요 목적중 하나로 밝히고 있다. 문화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각종 갈등과 차별을 넘어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의미하고 있다. 또한, 제3조 3항은 아래와 같은 차이를 명시하여, 다양한 종류의 '차이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 하고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다양성은 인권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게 하는 문화다양성의 존중은 곧 인권이므로, 인권과 문화다양성은 따로 떼어져 존재할 수 없다.

4.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

문화다양성을 어떻게 일상에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많은 관련 당사자와 기획자 및 활동가들의 계속되는 고민이다. 대표적인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진행하며 보았던 몇 가지 관점을 정리해 보았다.

‘문화다양성’은 ‘사업’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역시, 문화다양성이 일종의 또 다른 사업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철학과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 ‘문화다양성’이 문화다양성을 수행하는 담당자와 전담 부서에서만 존재하거나, 특정 ‘사업’ 안에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인권’,이나 ‘성평등’을 누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적인 철학과 사명으로 여기듯이, 문화다양성 또한 기본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안에서의 문화다양성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 우리 조직의 조직 문화와 활동영역에까지 그리고 일상을 사랑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확산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세계의 우수 기업들의 다양성 활동에서도 들어나고 있다. 이 기업들이 매년 자체적으로 기업의 다양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양성 담당자를 별도로 두고 있는 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기업 내의 인적 다양성을 유지 및 증진함은 물론, 구성원과의 관계와 활동에서도 다양성의 관점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문화·종교적 특성, 생애주기에 따른 삶의 다양한 양상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는 결국 생산성의 질과 양의 지속적 향상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서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diversity.google

Diversity | Google

Google should be a place where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experiences come to do their best work. That's why we continue to support efforts that fuel our com...



구글의 다양성 보고서

https://www.apple.com/diversity/

Apple

Inclusion & Diversity

At Apple, our differences are our greatest strength. Because to create products that serve everyone, we believe in including everyone.



애플의 포용성 및 다양성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사회가 군사독재 시대를 거치며, 현재의 인권의 가치를 얻기까지는 지난한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들었다.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와 당연한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는 과정 또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의 성과에 도달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도 사회전반에 일정이상 뿌리 내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 과정이 매우 순탄하고 항상 박수를 받을 수 도 없을 것이다. 문화다양성 존중의 기본 의무를 선언하는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과정도 부천과 대전의 경우처럼 특정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은 모두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지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많은 사업 담당자들이 오늘도 문화다양성 사업을 위해 대상자를 찾아다닌다. 대중들의 가치 확산 증진을 위해 일정한 사업 대상이 선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화다양성은 가치와 철학에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획자나 담당자 자신이 문화다양성 가치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나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가치를 타인에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활동은 바로 내 자신의 변화를 도모하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문화다양성 활동이 되어야 한다.

다양한 실천 전략을 시도해야 한다.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대표되는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사업이 2020년으로 9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의 많은 재단들이 수백 개 이상의 사업을 진행해 왔고 일정한 사업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다양성의 본질처럼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사업도 1타강사의 족집게 공식 같은 특정한 성공노하우가 존재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업은 지역과 실천 주체의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방식을 찾아가는 일정한 시간,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을 다년간 진행하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주체들도 각각의 ‘특정한 사업영역과 활동’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사업은 실험적인 다양한 시도들이 동반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곳이나 상당한 경험이 있는 곳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더 빈번한 언급과 노출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낯선 것에 익숙해지는 과정일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다양한 가치들이 한국사회 안에 천천히 녹아들고 사회가 변화되는 과정을 이미 여러 차례 겪어 왔다. 인간이 가진 낯선 것에 대한 본질적인 경계와 두려움을 견어내기 위해서라도, 문화다양성이 대중들에게 더욱 빈번하게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문화다양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도 매우 당연하게 다양성은 존재 해 왔다. 하지만, 같은 현상과 사건이라도 다양성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매우 다르다. 또한 다양성이 잘못된 시각

으로 노출되는 것 또한 적극적으로 교정해야 한다. 더불어, 주류 미디어에 의해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와 모습이 더욱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가치는 더욱 자주 보고 느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모두의 인식개선 활동이 되어야 한다.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정에 인식개선 활동은 필요적이라 하겠다.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하는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할 점은 다수자와 소수자 모두가 그 대상이라는 점이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다수자가 되기도 하고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 다수자와 소수자가 늘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면서 소수자에게 그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도 볼 수 있으며, 소수자에게 다수자의 논리를 따르도록 동화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까지도 종종 문화다양성이나 다문화교육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만 해달라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한다. 소수자를 다수자의 시각으로 가두고 교정해야할 문제집단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과정은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 함께 평등하게 공존하기 위해서 다수자의 차별과 배제 의식을 개선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차별과 혐오를 하지 않는 시민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에 당당히 맞서는 시민의식을 길러주어야 한다.

더 활발한 소통과 교류로 나아가야 한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획자와 사업 실행자의 주요 활동이 되어야 한다. 많은 연구에서 보듯, 결국 접촉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접촉의 밀도가 높을수록 상호간의 수용도는 증가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전국민다문화수용도’ 조사에서도 학교 또는 직장동료, 친구관계, 친척관계 등 접촉 가능성이 높은 관계일 때 그렇지 않은 관계 보다, 다문화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나왔다. 이런 연구결과가 아니더라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며 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상호간에 이해와 차이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할 결과다.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준비하는 주체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밀접한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더 활발한 소통과 교류의 기회와 장을 제공했으면 한다.

마무리하며

한국사회가 문화다양성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상호소통을 이야기한지는 불과 10여년 정도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문화다양성이라는 어찌 보면 낯선 단어가 한국사회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결국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과 혐오 문제에 심각성을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불어 타인의 다른 정체성을 존중하며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10여 년간 진행되어온 다양한 시도와 실험 그리고 성과 또는 실패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며, 문화다양성의 본질을 파악해나가는 과정을 지속해야 한다. 일상이 지속되듯, 나와 내 주변의 일상을 바꾸어 나가는 시도는 적극적이고 용감하게 계속해야만 한다.

2020 충청권 문화다양성 리서치북

발행처	충남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기획 및 편집	문화사업팀(충남), 생활문화팀(대전, 세종, 충북)
담당	조정민, 박주은(충남) / 송소혜(대전) / 김민영(세종) / 장옥진, 박소희(충북)
제작업체	디자인핏